

1. <보기>를 통해 음운의 교체 현상에 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ㄱ, ㄷ, ㅂ'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모든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소리 나는 현상.
 ㉣ 비음이 아닌 자음이 앞이나 뒤에 오는 비음 'ㅁ, ㄴ, ㅇ'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y'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선입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 현상.

[2점]

- (1) '국사발', '달다', '입고'를 발음할 때는 모두 ㉠이 일어나는군.
- (2) '물난리'를 발음할 때는 ㉡가 두 차례 일어나는군.
- (3) '꽃을'을 발음할 때는 ㉢의 적용을 받은 자음이 연음되는군.
- (4) '종로'는 앞에 오는 비음 때문에, '밥물'은 뒤에 오는 비음 때문에 ㉣가 일어나는군.
- (5) '굳이'를 발음할 때는 ㉤가 일어나지만, '견디다'를 발음할 때는 ㉤가 일어나지 않는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2. <보기>의 ㉢에 들어갈 기호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그 특성에 따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소식을 전해 준다.
 ㉠+㉡+☆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덮었다.
 ◇+㉢+☆
 범죄자, 한 달 만에 경찰에게 잡혔다.
 ㉣+◇+☆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다.
 ㉤

[2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종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음들이 음절 끝에 놓이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어야만 한다.
 (나) 국어의 'ㅎ'은 다른 음운과 만날 때 여러 가지 변동을 겪는다. 가령 'ㅎ'이 'ㅂ, ㄷ, ㄱ, ㅈ'에 인접하면 두 자음이 합쳐져서 거센소리가 된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3. (가)의 밑줄 친 음운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2점]

- (1) 공기를 막아서 내는 예사소리이다.
- (2)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한 예사소리이다.

- ③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예사소리이다.
- ④ 음절 초성에는 쓰이지 못하는 예사소리이다.
- ⑤ 모음 없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예사소리이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4. (나)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음운을 모두 밝혀 적어 보자.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점]

5.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가)	(나)
①	담도 → [닥또]	낱은 → [나은]
②	공발 → [공받]	앞도 → [압또]
③	밧이 → [비치]	먹는 → [멍는]
④	비웃 → [비욘]	졸지 → [조:치]
⑤	밧이 → [미치]	늘든 → [늘든]

[2점]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6. 다음 문장에 쓰인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넓은 밭에 예쁜 꽃이 피었다

[2점]

- ① '넓은'은 두 개의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 ② '밭'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 ③ '예'와 '이'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이다.
- ④ '예쁜'은 '예쁘-'와 '-ㄴ'의 두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 ⑤ '피었다'에는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7. <보기 1>의 ㉠, ㉡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

㉠ 나는 등직한 말형이 좋다.
 [나는 등지칸 마형이 조타]
 ㉡ 작은 시간에 해돋이를 주제로 글을 쓴다.
 [작문 시가네 해도지를 주제로 그를 쓴다]

— <보기 2> —

ㄱ.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든다.
 ㄴ.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탈락한다.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점]

출처 : 2013>2013 고3 7월 학평(인천)>국어 A형>11번

3.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빗],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뵃],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만뵃]

[2점]

- ① ㉠과 ㉡는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는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따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는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1번

9. <보기>의 '되다'가 지닌 의미와 용례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보기

의미

ㄱ. (동사)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ㄴ. (형용사) 반죽이나 밥 따위가 물기가 적어 딱딱하다.

ㄷ. (접미사) 서술성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적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들.

용례

a. 온도가 올라가자 얼음이 물이 되었다.

b. 수익금 전액이 문화 사업에 사용되었다.

c. 오늘 점심시간에 먹은 밥은 너무 되었다.

[2점]

- 그 는 드
- ① a b c
 - ② a c b
 - ③ b a c
 - ④ c a b
 - ⑤ c b a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0. <보기>의 ㄱ~ㅁ을 활용하여 사동문의 형성 과정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점]

- ① ㄱ: 자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었다.
- ② ㄴ: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기-'를 붙여 만들었다.
- ③ ㄷ: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었다.
- ④ ㄹ: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를 모두 붙여 만들었다.
- ⑤ ㅁ: 동사 어근에 보조적 연결 어미 '-게'와 보조 동사 '하다'를 붙여 만들었다.

출처 : 2013 포스 독서와 문법

11.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어떤 자음이라도 끝소리(받침)가 되면 대표음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중의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받침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 첫째, 받침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 그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둘째,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 그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2점]

- ① 꽃 ② 덮다 ③ 못이
- ④ 부엌 ⑤ 슬 위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2. <보기 2>는 '-겠-'을 사전에서 찾은 결과이다. 이를 감안할 때, <보기 1>의 예문을 용례로 추가하기에 알맞은 것은?

보기 1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

보기 2

-겠-

「어미」
 ('이다'의 어간, 응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2」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나는 시인이 되겠다.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5」 해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별사람을 다 보겠다.

[2점]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3. <보기 1>의 ㄱ~ㅁ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합성어는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인데,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ㄱ. 'A + B → AB'의 형태 : A와 B의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된 경우
 예) 눈 + 발 → 눈발(눈과 발)

보기2

- 빈 말풍선 속에 대사를 써라.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토끼잠을 잤다.
- 그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말풍선 | 돌다리 | 토끼잠 | 오리발 |
| ② 오리발 | 말풍선 | 돌다리 | 토끼잠 |
| ③ 돌다리 | 토끼잠 | 오리발 | 말풍선 |
| ④ 오리발 | 토끼잠 | 말풍선 | 돌다리 |
| ⑤ 돌다리 | 말풍선 | 토끼잠 | 오리발 |

[2점]

㉠ ㉡ ㉢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의 특성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 파생어를 만든다. 접사 중에는 원래의 단어가 갖는 의미에 뜻을 더해 주거나, 그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있다. 접사가 결합하면서 품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

ㄱ. 그는 강추위에 고생을 했다.
 ㄴ. 향아리 덮개가 또 깨지고 말았다.
 ㄷ. 그는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ㄹ. 어머니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ㅁ. 동생이 거실의 온도를 높였다.

[2점]

- ㄱ에서 '강추위'의 '강-'은 '매우 센'이라는 의미로, '추위'의 정도를 강화해 준다.
- ㄴ에서 '덮개'의 '-개'는 동사의 어근에 붙어 명사로 파생시켜 주므로 품사를 달라지게 한다.
- ㄷ에서 '겁쟁이'의 '-쟁이'는 명사 뒤에 붙어 어근에 뜻을 더해 주지만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 ㄹ에서 '읽히다'의 '-히-'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해 주면서 '동생이 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바꾼다.
- ㅁ에서 '높이다'의 '-이-'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거실의 온도가 높다.'라는 문장의 구조도 바꾸지만 원래 단어의 품사는 바꾸지 못한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15.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점]

- (1)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낼 수 있다
-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6. 다음은 어떤 학생이 의문을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문 '꿈'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비움'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탐구

[탐구 절차]

- '꿈'과 '비움'의 형태소 분석하기
 - 꿈 → 꾸- + -ㅁ
 - 비움 → 비우- + -ㅁ
- '꿈'과 '비움'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기
 - 그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 그는 놀랍게도 꿈을 꾸었습니다.
 - 행복은 마음을 철저히 비움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으로 보아, '꿈'의 '-ㅁ'은 명사를 만드는 접사이고, '비움'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다. 즉 '꿈'은 명사로서 하나의 단어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비움'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활용형이므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다.

[2점]

- '비움'과 '꿈'이 모두 어간에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
- '꿈'이 동사 '꾸다'에서, '비움'이 동사 '비우다'에서 비롯된 것
- '비움'과 달리 '꿈'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꾸다'와 호응하는 것
- '꿈'이 목적어로 쓰이고, '비움'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인 것
- '꿈'이 관형어의 수식은 받지만 '비움'과 달리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 것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7.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다고 할 때, ㉠과 ㉡에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 된소리되기: 예사소리(평음)가 된소리(경음)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동화되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
- 구개음화: 'ㅣ' 또는 반모음 'y'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 앞에서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이 되는 현상.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보기2

날날이 → [날 : 나치] → [난 : 나치]

	㉠	㉡
①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비음화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구개음화	비음화
③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④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구개음화
⑤	유음화,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2점]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8.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보기>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2점]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3번

1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ㅊ, ㅌ'이 되는 현상이나, 모음 'ㅣ'나 'ㅛ/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는 현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2점]

- ① 박하 → [바카] ② 앉던 → [안던]
- ③ 맞추+어 → 맞춰 ④ 그리+어 → 그려
- ⑤ 쓰+어 → 써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20. <보기>의 ㉠, ㉡과 유사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간혹 '문을 잠궈 놓았다.'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잠궈'가 아닌 ㉠'잠가'로 표기해야 한다. '김치를 담궈 놓았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담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오류는 '바꾸다', '두다'와 같이 어간이 'ㄷ'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2점]

- ① '밥을 푸다.'에서 '푸다'의 어간 '푸-'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ㅌ'가 탈락하여 '퍼'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② '길을 걷다.'에서 '걷다'의 어간 '걸-'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 'ㄷ'이 'ㄹ'로 바뀌어 '걸어'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③ '고기를 굽다.'에서 '굽다'의 어간 '굽-'은 어미 '-어'와 결합하면 'ㅂ'이 'ㅌ'로 바뀌어 '구워'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④ '시험을 치르다.'에서 '치르다'의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ㄷ'가 탈락하여 '치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 ⑤ '술이 푸르다.'에서 '푸르다'의 어간 '푸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미가 '-러'로 바뀌어 '푸르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21. 다음을 참고할 때, 음운 변동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

다. 예를 들어 '먹는'은 '[명는]'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이 뒤에 오는 음운 '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력되는 음운을 a, 출력되는 음운을 b, 환경을 X와 Y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aY \rightarrow XbY$$

먹는 [명는]

이때 a는 Y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점]

- ① '봄이 → [보미]'의 'ㅁ'
- ② '국물 → [궁물]'의 'ㄱ'
- ③ '권력 → [귄력]'의 'ㄴ'
- ④ '같이 → [가치]'의 'ㅌ'
- ⑤ '잡고 → [잡꼬]'의 'ㄱ'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22.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다음은 '소년'과 '소녀'의 의미 성분을 분석한 사례인데,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소년: [+인간][+남성][-성숙]

소녀: [+인간][-남성][-성숙]

※ +는 그러한 성질이 있음, -는 그러한 성질이 없음.

학생: 단어의 성분 분석을 보니까, '소년'과 '소녀' 두 단어에는 '인간'과 '미성숙'이라는 공통된 의미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다면 다음 성분 분석 사례에서 ㉠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쓰다: [+㉠][+머리나 얼굴]

끼다: [+㉠][+손이나 손가락]

입다: [+㉠][+물통]

신다: [+㉠][+발]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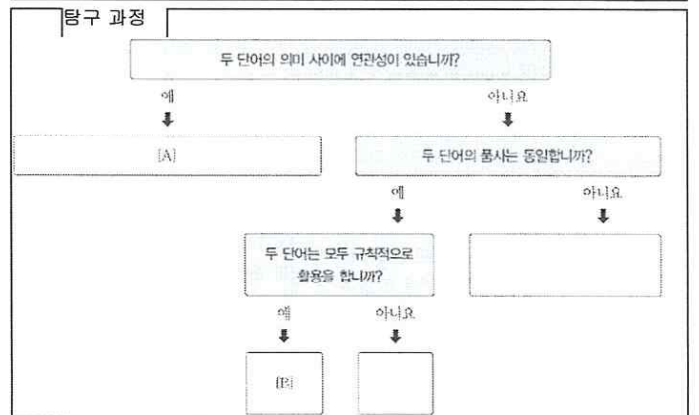
- ① 덮음 ② 넣음 ③ 꽃음 ④ 투입 ⑤ 착음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23.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차례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뜨다: 그는 동작이 영 뜨다. / 종이배가 물에 뜨다.
 ㄴ. 붓다: 은행에 적금을 붓다. / 자루에 밀가루를 붓다.
 ㄷ. 묻다: 옷에 잉크가 묻다. / 그에게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 묻다.
 ㄹ. 같다: 부수품을 좋은 것으로 같다. / 구슬을 만들기 위해 옥돌을 같다.



[A] [B]

[2점]

- ① ㄱ ≡
- ② ㄴ ≡

- (1) ㄴ =
- (2) ㄷ ㅌ
- (3) ㅁ = ㅂ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24. 다음은 합성어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구성 요소	발음	의미 관계
물 + 고기	[물꼬기]	'물고기'에서 '물'은 '고기'가 사는 장소에 해당함
불 + 고기	[불고기]	'불고기'에서 '불'은 '고기'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함
산 + 바람	[산빠람]	'산바람'에서 '산'은 '바람'이 부는 장소에 해당함
비 + 바람	[비바람]	'비바람'에서 '비'와 '바람'은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됨
겨울+비	[겨울비]	'겨울비'에서 '겨울'은 '비'가 오는 시간에 해당함
이슬+비	[이슬비]	'이슬비'에서 '이슬'은 '비'의 모양을 가리킴

[2점]

- (1)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같으면 동일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다.
- (2) 합성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합친 것과 동일하다.
- (3)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
- (4) 합성어의 구성 요소에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포함된다.
- (5)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경음화의 적용이 달라진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5.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문다⁰¹ 「동사」 【…에】 […을] [문고, 문게, 물어, 물으니]

(1)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 손에 기름이 문다.

(2) ('문어', '문어서' 꼴로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 함께 팔리거나 섞이다. **☞** 가는 김에 나도 좀 물어 타자.

문다⁰³ 「동사」 【…에/에게 …을】 [문고, 문게, 물어, 물으니]

(1)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 **☞**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

(2) ('책임' 따위를 목적어 성분으로 하여)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 **☞**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다.

[2점]

- (1) 문다⁰¹은 (1)과 (2)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므로 다의어라 할 수 있다.
- (2) 문다⁰¹ (2)의 용례로 '나는 그를 틈에 물어 다녔다.'를 추가할 수 있다.
- (3) 문다⁰³ (2)와 유의 관계에 있는 말로 '추궁(追窮)하다'를 들 수 있다.
- (4) 문다⁰³은 문다⁰¹과 달리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 (5) 문다⁰¹과 문다⁰³은 모두 문장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정경 실전문마무리 국어A

26. 다음 <국어사전>의 발음 정보를 참조할 때, <표준 발음법>의 ㉠와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사전>

강다[강 : 따] 념다[념 : 띠] 말다[말 : 다] 밧다[밧 : 따] 안다[안 : 따]

<표준 발음법>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응연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
-------------------------------------	---

[2점]

- ① ㉠ 눈을 값으니 그간의 일이 스쳐 지나간다.
㉡ 졸음에 겨운 아이는 눈이 값고 있었다.
- ② ㉠ 그는 10시가 벌어서 집에 도착했다.
㉡ 냇물이 벌치지 않게 둑을 높이 쌓아야 한다.
- ③ ㉠ 수레를 위에서 밀어 언덕을 넘었다.
㉡ 사람들에게 밀리니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 ④ ㉠ 옆 사람이 발을 발아 매우 아팠다.
㉡ 발을 발히는 바람에 발가락을 빼었다.
- ⑤ ㉠ 아이를 다정하게 안아 주었다.
㉡ 아기를 할머니께 안기고 집을 나섰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27.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뉘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보기>

- ㄱ. 그는 날렵한 ㉠곶날[곶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물약[물락]을 지어갔다.
- ㅁ. 그녀는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3점]

- ① ㉓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㉔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므로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㉕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㉖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㉗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2번

28.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발음 자료	수정 사항
① 뵈[바:]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ㅁ'을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뵈:]'로 발음한다.
② 담임[다님]	'ㄹ'을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임]'으로 발음한다.
③ 발을[바슬]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ㅅ'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슬]' 대신 '[바췌]'로 발음한다.
④ 쫓다[쫓:따]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쫓:따]' 대신 '[쫓:따]'로 발음한다.
⑤ 참말[참말:]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2점]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9. <보기>를 바탕으로 접두사와 관형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이 컴퓨터, 그 사람 / 이 새 컴퓨터, 그 큰 사람
- ㉡ 들-기름, 선-머슴 / 들-새기름*, 선-큰머슴*
- ㉢ 모든 바, 모든 수수, 모든 사람, 모든 음식, 모든 일
- ㉣ 메-벼, 메-수수 / 메-사람*, 메-음식*, 메-일*
- ㉤ 온 세상, 흰 신 / 온 살다*, 흰 신다*
- ㉥ 뒤-범벅, 헛-수고 / 뒤-섞다, 헛-되다

* 표시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2점]

- ① ㉠~㉢으로 보아,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며, 접두사는 뒤에 오는 말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과 ㉤으로 보아, 관형사와 접두사는 모두 뒤에 오는 말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
- ③ ㉠과 ㉡으로 보아, [접두사+어근]의 구성은 [관형사+체언]의 구성과는 달리 구성을 이루는 두 말 사이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없다.
- ④ ㉣과 ㉤로 보아, 관형사 뒤에 올 수 있는 체언에는 제약이 크지 않지만, 접두사는 뒤에 올 수 있는 어근이 한정되어 있다.
- ⑤ ㉣과 ㉤으로 보아, 관형사는 용언 앞에 쓰일 수 없지만 접두사는 용언과 결합할 수 있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30. <보기 1>에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에 제시되어 있다.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1>의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직행열차[지랭닐차], 흙이불[흔니불], 내복약[내:봉낙], 콩엿[콩닐], 색연필[생년필]

보기 2

-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ㄹ, ㅇ'으로 바뀌는 현상
-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현상
- 거센소리되기: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 'ㄴ' 첨가: 선형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2점]

- ① '직행열차 → [지랭닐차]'의 변동 과정은 거센소리되기과 'ㄴ' 첨가를 포함한다.
- ② '흙이불 → [흔니불]'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와 'ㄴ' 첨가를 포함한다.
- ③ '내복약 → [내:봉낙]'의 변동 과정은 유음화와 'ㄴ' 첨가를 포함한다.
- ④ '콩엿 → [콩닐]'의 변동 과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를 포함한다.
- ⑤ '색연필 → [생년필]'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 첨가를 포함한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31. (가)를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제5항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불리리 띄어쓰기 띄어 띄어 희망

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ㅁ]로, 조사 '의'는 [ㅁ]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혐의[허궤/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나) 지식의 소중함

[2점]

- ① '지식의'는 '[지시계]'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 ② '지식의'는 '[지시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지식의'를 '[지시기]'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다.
- ④ '지식의'를 '지혜의'로 바꾸면 '의'의 발음도 달라진다.
- ⑤ '지식의'에서 '의'의 발음은 '법칙의 발견'에서 '의'의 발음과 동일하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32.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구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찜질'은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기보다 먼저 '찌-'에 '-ㅁ'이 붙어 '찜'이 되고, '찜'이 다시 '-질'과 결합하여 '찜질'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곧 '[동사 어간+접미사]+접미사'인 것이다. '찜질'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지만 이들 세 형태소는 계층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의 결합에는 친소(親疏)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찜질'은 '찜'에 '-질'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로 보아야 한다.

[2점]

- ①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잠귀가 밝은 편이다.
- ②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은 욕심꾸러기이다.
- ③ 그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물음표를 쓰지 않았다.
- ④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볶음밥을 먹었다.
- ⑤ 그 싸움쟁이는 새벽녘까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3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요'로 적는다.
제17항 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표준 발음법]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보기 2
•우리는 친구가 ㉠아니오. 형제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지요. 형제이지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오. 형제이오.

[2점]

- ① ㉠의 '요'는 연결 어미이고, ㉡의 '요'는 종결 어미이다.
- ② ㉢에는 어간, 어미, 조사가 모두 쓰였다.
- ③ ㉠과 ㉡의 어간은 모두 '아니-'이다.
- ④ ㉢은 ㉠과 똑같이 발음할 수도 있다.
- ⑤ ㉡의 '오'는 종결 어미로 이를 '요'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3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자립성 유무와 의미의 실질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자립성 유무
 - 자립 형태소 :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의존 형태소 :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 의미의 실질성 유무
 -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대상, 상태, 동작 등을 나타내는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보기 2
ㄱ.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2점]

- ① ㄱ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나, 는, 오늘, 도, 책, 을, 읽-, -었-, -다'가 되겠군.
- ② ㄱ에서 '나, 오늘, 책'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겠군.
- ③ ㄴ은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개수가 동일하겠군.
- ④ ㄱ의 '읽-'과 ㄴ의 '푸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겠군.
- ⑤ ㄱ의 '는, 도, 을'과 ㄴ의 '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겠군.

출처 : 2012 수능완성 언어영역

35. <보기>를 바탕으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결합된 경우,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한편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지 않고 결합되는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결합하는 어근의 어순이 바뀐 합성어, 동사 어근끼리 결합할 때 연결 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등이 있다.
(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합성어를 병렬 합성어라고 하고, 두 어근 중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는 관계를 지닌 채 결합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라고 한다. 또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2점]

- ① '눈발'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로,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뒤돌다'는 동사와 동사가 연결 어미 없이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협조했다.'의 '물불'은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 채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병렬 합성어이다.
- ④ '돌다리'는 '돌'이 의미 관계상 '다리'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이다.
- ⑤ '그는 사업을 말아먹었다.'의 '말아먹다'는 결합된 어근이 본래의 뜻을 잃어 버리고 새로운 뜻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36. <보기>에서 설명한 '받침 규칙'과 '비음화'가 모두 나타나는 사례가 아닌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에는 모두 열아홉 개의 자음이 있지만 그중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뿐입니다. 뒤에 아무런 음이 따르지 않든가 자음이 뒤따르게 되어 받침에 쓰인 'ㄱ,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이 각각 'ㄱ, ㄷ, ㅂ'으로 바뀌는 현상을 '받침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침 규칙을 준 자음은 다시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는다'에서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ㅍ'이 'ㅂ'으로 바뀐 [덧는다]가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다시 [뎡는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각각 비음인 'ㅇ, ㄴ, ㅁ'으로 변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2점]

- ① 걸레로 방바닥을 닦는다.
- ②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다.
- ③ 올해는 발농사가 잘 되었다.
- ④ 그는 비싼 옷만 사려고 한다.

(5) 잠깐 사이에 밖이 흘러 넘쳤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문리 국어A

37.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 가운데는 다른 말의 도음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고,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도 있다. 즉, ㉠자립 형태소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분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2점]

- (1) 가을바람이 할아버지의 모자를 훔쳐 가 버렸다.
- (2)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불평 없이 자라고 있다.
- (3) 누나가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 (4) 간방의 특별로 온 세상이 새하얗게 물들어 버렸다.
- (5) 아빠의 손을 잡고 걷는 밤길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38.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학습한 후 용례 조사하기 과제를 <보기>와 같이 내 주었다.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류	내용	용례
'ㅅ' 불규칙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함.	짓- + -어 → 치어, 잇- + -어 → 이어, (㉠)
'ㄷ' 불규칙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함.	들- + -어 → 들어, 묻[問]- + -어 → 물어, (㉡)
'ㅂ' 불규칙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함.	ծ- + -어 → 더워, 증- + -어 → 주워, (㉢)
'ㄹ' 불규칙	'ㄹ'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ㄹ' 형태로 변함.	흐르- + -어 → 흘러, 빨르- + -어 → 빨라, (㉣)
'ㄹ' 불규칙	어간이 'ㄹ'로 끝나는 일부 용언에서 어미 '-어'가 'ㄹ'로 변함.	이르[至]- + -어 → 이르러, 누르[黃]- + -어 → 누르러, (㉤)

[2점]

- (1) ㉠: cuts + -어 → 그어
- (2) ㉡: 깨달- + -어 → 깨달아
- (3) ㉢: 아름답- + -어 → 아름다워
- (4) ㉣: 찌르- + -어 → 찌러
- (5) ㉤: 치르- + -어 → 치러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39. 다음 (가), (나)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어깨동무, 피땀, 오르내리다
(나) 구경꾼, 새파랗다, 짓누르다

[2점]

- (1) (가)는 단일어이지만, (나)는 복합어이다.
- (2) (가)는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3) (가)는 어근들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나)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4) (가)는 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어이고, (나)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5) (가)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40. 다음은 비음화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결론의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음화는 자음 동화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자음의 어떤 점이 같게 되는 걸까?

비음화의 사례
국물[국물] ㄱ+ㅁ→ㅇ+ㅁ
말머느리[만머느리] ㄷ+ㅁ→ㄴ+ㅁ
입는다[입는다] ㅂ+ㄴ→ㅁ+ㄴ

※ 참고 자료: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잇딄똥, 혀끝	젓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ㅉ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유음		ㅁ	ㄴ		ㅇ	
			ㄹ			

결론 ㉢ 국어의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비음화의 사례를 탐구한 결과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바뀌는데, 이는 ㉢은(는) 'ㄴ, ㅁ'과 같아진 것이지만, ㉤은(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 ㉤ [2점]

- (1) 조음 방법 조음 위치
- (2) 조음 위치 조음 방법
- (3) 조음 위치 소리의 세기
- (4) 소리의 세기 조음 위치
- (5) 소리의 세기 울림소리 여부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4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變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교체: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탈락: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 축약: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그런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깨끗하다 → [깨겻하다] → [깨끄타다]

㉠ ㉡ ㉢ ㉣

㉠ ㉡ [2점]

- (1) ㉠ ㉣
- (2) ㉠ ㉡
- (3) ㉢ ㉣

- (1) ㉠ ㉡
- (2) ㉢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42. <보기 1>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밑줄 친 단어들에서 찾아 각각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음운 변동 현상이란 원래의 음운이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음운 자체에서 변하는 경우와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보기 2
㉠ 마당을 나온 암탉[암탁]
㉡ 날이 추우니 담요[담 : 뇨]를 꼭 덮고 자라.
㉢ 그녀는 먹는[멍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다.
㉣ 너는 그때 글이[구지] 그 말을 했어야 했니?
㉤ 딸기는 하얀 꽃[꽃], 노란 열매가 인상적이다.

㉠ ㉡

[2점]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문이 국어A

43.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발견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한 것은?

조건
•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품사가 바뀐 것
• 접미 파생어에 접두사가 결합된 것

[2점]

- (1) 풋사랑
- (2) 아침밥
- (3) 군소리
- (4) 헛웃음
- (5) 산울림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44. <보기>를 참고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의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간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네. '산나물', '작은집', '들어간다'는 각각 '명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으로서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이렇듯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한편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 '부사 + 명사'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어미가 개입되어야 하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용언이나

[2점]

- ① '척척박사'는 '부사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덜밤'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점칼'은 '용언의 어간 + 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김뽕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스며들다'는 '용언의 어간 + 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45. 다음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한글 맞춤법 제1항에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말이 생소한가 보구나.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머칠, 개구리'처럼 표준 발음법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지. 이 방법은 말의 원형을 일일이 밝힐 필요 없이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란단.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음적 표기라고 하지. 하지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다. 예를 들면 '물이다'라는 말은 [우리다]로 발음되는데, 이를 소리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은 '물이다' 혹은 '우리이다'로 이해하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물이다'와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란단. 그리고 이러한 표기 방식을 표의적 표기라고 하지.

학생: 아,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을 배려한 표기 방식이군요. 그래서 '글이', '칼을'처럼 (㉢)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 ㉡ ㉢

[2점]

- (1)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 (2)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의적
- (3) 글을 읽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음적
- (4)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읽는 사람 - 표의적
- (5) 글을 쓰는 사람 - 글을 쓰는 사람 - 표음적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46. <보기>를 참고하여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억양이나 장단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음운의 일종이지만, 분절 음운에 기대어 나타나서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먼저 억양이란 문장의 어조 곡선을 이른다. 예컨대 "집에 가"를 말로 한다고 할 때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가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단(長短)이란 모음을 통해 실현되는 소리의 길이를 이르며, ':'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 [눈]과 [눈:]으로 발음되는 '눈[眼]'과 '눈[瞶]'은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데 '눈보라[눈:보라]'와 '첫눈[천눈]'에서 알 수 있듯, 장음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점]

- ①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도 비분절 음운에 해당하겠군.
- ② '눈[瞶]'의 경우, 중성의 'ㄴ' 소리를 길게 발음해야 하겠군.
- ③ "눈이 안 보여"를 말로 할 때 억양과 장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는 없겠군.

- ④ “혼자 살아”를 말로 할 때 끝을 올리는 억양을 활용하면 명령의 의미를 드러내겠군.
- ⑤ ‘거짓[거 : 짐]’과 ‘말[말 :]’이 결합하여 ‘거짓말’이 될 때 원칙상 ‘말[말 :]’의 장음은 사라지겠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4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2점]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평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1번

48.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최고점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입의 개폐)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반개모음)		ㅑ	ㅕ	ㅗ	ㅛ
저모음(개모음)		ㅓ	ㅓ	ㅜ	ㅟ

철수: 영희야, 난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지?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점]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야 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1번

49. <보기>의 발음 관련 질문에 답할 때, <선생님 설명>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기

- ㉠ ‘봉투에 우표를 붙인다.’에서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
- ㉡ ‘기억에서 잊히다.’에서 ‘잊히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이 맞나요?
- ㉢ ‘같이’는 [가티]로 발음하나요? [가치]로 발음하나요?
- ㉣ ‘밭이랑에 씨를 뿌리다.’와 ‘밭이랑 논은 우리 땅이다.’의 ‘밭이랑’은 왜 발음이 다른가요?
- ㉤ ‘밭을 갈다.’의 ‘밭을’은 [바를]인데, ‘밭이 넓다.’의 ‘밭이’는 [바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생님 설명>

받침 ‘ㄷ, ㅌ’이 모음 ‘ㅣ’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선입천장소리(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음 ‘ㅣ’는 조사나 접미사에서 쓰인 것이어야 합니다. 즉 받침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날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50.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된소리되기]

- ①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먹+지 → [먹지], 법+과 → [법과], 젓+소 → [젓소]

- ②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ㄴ(ㄴ), ㄹ(ㄹ)’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ㄱ, ㄷ, ㅌ, ㅈ’일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

[예] 앉+지 → [안찌], 남+고 → [남꼬]

[2점]

- ① 꽃밭에 꽃들이 만개했다.
- ② 그녀는 빨래를 삶지 않았다.
- ③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 ④ 아침에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 ⑤ 그는 손짓으로 가방을 가리켰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51.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2점]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될 수 있다.
-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멀췌 날이 밝는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줍쌀이 두 가마니였다.
- ⑤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리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52.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기>의 ㉠~㉣에 쓰인 '다른'의 품사를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국어사전>
 •다른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즉 딴
 •다르다 「형용사」 [달라, 다르니]
 【…과(와)】(‘…과(와)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기
 ㉠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 그녀의 외모가 평소와 다른 탓에 깜짝 놀랐다.
 ㉣ 늦게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 쌍둥이들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자라났다.

관형사 형용사

[2점]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53.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밑줄 친 관형질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보기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 관계 관형절은 안긴 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 속의 체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그러나 동격 관형절은 안긴 문장과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자.
 a. '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 +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를 사랑한다.
 b. '그가 범인이다.' + '나는 확신이 없다.' →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다.
 a는 안긴문장에 두 문장의 공통 성분인 '그녀'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 b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 따라서 a는 관계 관형절, b는 동격 관형절이라 판단할 수 있다.

[2점]

- (1)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
- (2)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
- (3)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
- (4)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
- (5)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54. <보기 1>은 인칭 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을 읽고 <보기 2>의 인칭 대명사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인칭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시 대상에 따라 지시 대상이 화자인 경우를 1인칭 대명사, 청자인 경우를 2인칭 대명사, 화·청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한다. 또한 특정 대상의 지시 여부에 따라 앞서 나온 3인칭 주어를 다시 반복할 때 사용하는 재귀 대명사,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가 있다.

보기 2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심은 소나무 묘목을 매우 소중히 가꾸셨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장난으로 그것이 뿌리째 뽑혀 버렸어요. 아버님께서는 화가 나서 우리 둘 중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어보셨죠. 동생은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잘못을 모른 척해 주었어요. 동생은 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그때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이 ㉤자기 멋대로인 때였죠.

[2점]

- (1) ㉠: 재귀 대명사
- (2) ㉡: 부정칭 대명사
- (3) ㉢: 1인칭 대명사
- (4) ㉣: 3인칭 대명사
- (5) ㉤: 재귀 대명사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55.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2점]

- ① 그녀의 속눈썹은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 ② 나이보다 얼굴이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 ③ 봄바람이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 크다.
-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출처 : 2014>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2번

문제는행

56.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품사 형태 기능 의미
----	----------------------

•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 (이)라고 한다.

• 단어들은 ㉡ _____ 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먹다, 예쁘다, 이다'와 같은 단어들은 ㉢ _____ 이/가 변하는 예이다.

•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 _____ 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체언은 ㉤ _____ 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점]

57.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무척 기뻐다. ㉡ 그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 김 대리,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 정은이여, 드높은 이상을 가졌는가? ㉤ 설마 그녀가 너에게 돈만 주었니?
----	---

(1) ㉠~㉤을 보니 문장이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군.

(2) ㉠과 ㉡을 보니 부사어는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것과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이 있군.

(3) ㉢과 달리 ㉣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지만, 문장이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군.

(4) ㉢과 달리 ㉣의 독립어는 독립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군.

(5) ㉢과 달리 ㉣은 관형어를 생략할 경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군.

출처 : 2013 수능원성 국어A형 [2점]

[58~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영수 : ㉠철수야, 너 ㉡새 구두 샀어? 철수 : ㉢아니, ㉣산 것이 아니라, 영희에게 선물로 받은 거야. 영수 : 정말 ㉤멋진 구두네. 철수 : 칭찬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영희에게 구두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 영수 : 다음 주 ㉦희철이의 결혼식에 갈 때, 그걸 신고 가면 되겠다. 철수 : 좋은 생각인데? 저번에 산 정장과 잘 어울리겠다.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점]

58.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감탄사는 모두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2)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3) 글에서 이 문장 성분 위에는 흔히 반정(,)을 찍는다.
 - (4)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 (5)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59. ㉠~㉤ 중,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2점]

(1) ㉠ (2) ㉡ (3) ㉢ (4) ㉣ (5)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60. <보기>의 ㄱ과 ㄴ, ㄷ과 ㄹ을 대비하여 추리할 수 있는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파생 접미사와 어미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ㄴ. 정심을 먹고 잠시 낮잠을 잤다. ㄷ. 태양이 높<u>이</u> 솟아 있다. ㄹ. 하늘은 높<u>고</u> 바다는 푸르<u>다</u>. 'ㄱ'과 'ㄷ'의 파생 접미사인 '-이'와, 'ㄴ'과 'ㄹ'의 어미인 '-고'를 대비하면 이러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	---

- (1) 어미는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파생 접미사는 그렇지 않다.
 - (2) 파생 접미사는 의미가 일정하지만 어미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다.
 - (3) 어미와 결합된 말은 사전에 등재되지만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그렇지 않다.
 - (4) 파생 접미사는 어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어미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 (5)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어미는 단지 활용형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2점]

61. <보기>의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에 주목할 때, ㄱ~ㄹ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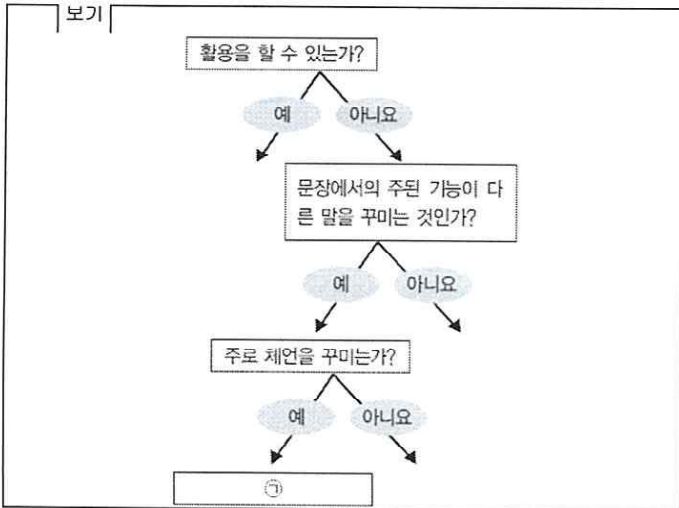
보기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말한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영수가 공부는 못하지만 집안일은 잘 돕는다. ㄴ. 방과 후에 너만 남아서 일을 좀 도와주겠니? ㄷ. 그는 자기가 마치 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군다. ㄹ.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ㅁ.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데다 한 명의 친구조차 없다.
----	---

- (1) ㄱ의 '은'은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인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2) ㄴ의 '만'은 다른 학생들은 모두 배제한다는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3) ㄷ의 '이나'는 사장의 직책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④ ㉞의 '밖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 ⑤ ㉞의 '조차'는 가난한 처지를 포함하면서 한 명의 친구도 없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어.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62. <보기>는 품사 분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에 해당하는 것은?



[2점]

- ①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왔다.
- ② 동생은 못 본 사이에 출쩍 키가 컸다.
- ③ 우리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 ④ 그는 성공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 ⑤ 옛말에 예쁜 자식은 매로 키우라고 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63.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2점]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당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64. <보기>의 ㉠에 해당하는 명사가 아닌 것은?

보기
자립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 없이 홀로 쓰일 수 있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 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한다.

[2점]

- ① 제주도애 가 본 지가 오래되었다.
- ②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다.
- ③ 우리는 먹을 데를 찾아서 이등했다.
- ④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반가 크다.
- ⑤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싶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65.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보기

품사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 는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	----	----------------------

[3점]

- ① 형태 | 깊다, 깊이 ∥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르다
- ② 기능 | 깊다, 모르다 ∥ 호수, 강, 깊이 ∥ 누구 ∥ 가, 의 ∥ 는, 도
- ③ 기능 | 깊다, 모르다 ∥ 호수, 강, 깊이, 누구 ∥ 가, 의, 는, 도
- ④ 의미 | 깊다, 깊이 ∥ 모르다 ∥ 호수, 강 ∥ 누구 ∥ 가, 의, 는, 도
- ⑤ 의미 | 깊다 ∥ 깊이 ∥ 모르다 ∥ 호수 ∥ 강 ∥ 누구 ∥ 가 ∥ 의 ∥ 는 ∥ 도

출처 : 2013>2013 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2번

6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 품사: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으로, 크게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품사는 '형태'를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고, '기능'을 기준으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미'를 기준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 문장 성분: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대체로 어절 단위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는 어절이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만, 어절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문장 성분은 크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나눌 수 있다.

㉠

보기 2		
[예] 첫 시험을 무사히 치러서 기분이 <u>좋았다</u> .		
구분	첫	좋았다
품사	㉠	㉡
문장 성분	㉢	서술어

㉠ ㉡ ㉢

[2점]

- ① 관형사 관형어 형용사
- ② 관형사 부사어 등사
- ③ 관형사 부사어 형용사
- ④ 수사 관형어 형용사
- ⑤ 수사 부사어 등사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67. <보기>에서 '선생님'이 내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ㄱ.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ㄴ.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는 경우
ㄷ.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ㄹ. 체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
자, 그럼 아래의 문장을 살펴보고, 밑줄 친 관형어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 그의 <u>옛 스के치북</u> 에는 <u>고함</u> 모습이 담겨 있다.
(나) 영수의 <u>잘못된 행동</u> 은 당연히 <u>지탄</u> 받아야 한다.
(다) 그녀는 <u>새 옷</u> 을 입고 <u>예쁜 구두</u> 를 신고 있었다.
(라) 그녀는 <u>웬 영문인지 모를 행동</u> 을 하기 시작했다.
(마) 소녀는 <u>소년의 생각</u> 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u>시골 풍경</u> 을 좋아하는지를.

[2점]

- ① (가): ㄱ, = ② (나): ㄴ, = ③ (다): ㄱ, =
- ④ (라): ㄷ, = ⑤ (마): ㄴ, =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68.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2점]

- ① 학생 서넛이 찾아왔어요.
- ② 우리 집 식구는 다섯이다.
- ③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 ④ 우리의 이념 중 첫째는 진리이다.
- ⑤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69. <보기>의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 중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에는 '잇고, 잇지, 이어, 이어서', '듬고, 듬지, 도와, 도와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잇다', '듬다'와 같이 ㉠어간이 바뀌는 것, '하고, 하지, 하여, 하여서', '이

[2점]

- ① ㉠: 깨닫다 ② ㉡: 높다 ③ ㉢: 일컬다
- ④ ㉠: 푸르다 ⑤ ㉢: 파랗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70.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았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2점]

- ① ㉠과 ㉡를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를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를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를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를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71.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2점]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72.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출문장이 대등하거나 증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점]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5번

73.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청자에게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라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 한다. 한편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굳이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도 있는데, 이를 ㉠수사 의문문이라 한다.

[2점]

- ① 아무려면 나만 한 사람이 또 있으랴?
- ②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 ③ 이곳에서 짐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 ④ 이런 일이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르니?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7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3점]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3번

75. <보기>의 ㉠, ㉡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저곳이 우리가 입학할 대학이다.

주어+
주어+서술어
+서술어

①

㉡ 나는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주어+
㉢주어+서술어
+ ㉣주어+서술어
+서술어

②

[2점]

- ① ㉠의 ㉢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② ㉠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③ ㉡의 ㉢와 ㉣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④ ㉡의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의 ㉡와 ㉡의 ㉢는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76.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2점]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77.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문제은행

[2점]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오너라.
- ② 하늘이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3번

78.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문'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오늘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ㄴ. 지금 비가 오니?
 ㄷ. 내가 이 상자를 설마 못 들겠느냐?
 ㄹ. 대학에 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ㅁ.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2점]

- ① ㄱ이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면, ㄴ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 ② ㄷ은 반어적인 기능을 가진 의문문으로 '내가 이 상자를 들 수 있다.'라는 평서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③ ㄹ은 소망이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④ ㅁ은 듣는 이에게 '그만두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명령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ㅁ~ㅁ은, ㄱ이나 ㄴ과는 달리 듣는 이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고 있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79. ㉠~㉣을 바탕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오늘 집에서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하였다. ㉠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 ㉢

[2점]

-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 ② ㉡의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숙제'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은 겹문장이 된다.
- ④ ㉡의 '의미 있는'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⑤ ㉢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일반적으로 정악(正樂)과 민속악으로 구분한다. 정악은 궁중에서 연주되던 넓은 의미의 아악(雅樂)과 선비들이 즐기던 아정(雅正)한* 음악을 가리키며, 민속악은 판소리, 산조, 민요, 농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민들 사이에 즐겨 연주되고 감상되던 음악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여러 종류의 한국 전통 음악 중에서 어느 음악이 가장 대표적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이냐 하고 물어 볼 때는 실로 난처한 때가 있다. 그것은 서양 음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향곡이나 실내악곡은 예술성이 풍부하고, 오페라나 이탈리아 가곡은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악은 국악대로, 국악 중에서도 정악이나 민속악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멋을

지니고 있다. 정악은 잔잔한 호수를 대면하고 있을 때처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만드는 멋이 있다. ㉡ 반면 민속악은 민요처럼 흥청거리고 구성지며, 신명이 나는 멋이 있어서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각기 그 멋이 다르다고 하겠다.
 - 권오성, '영산회상(靈山會相)과 시나위'
 * 아정하다 : 기품이 높고 바르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80. ㉠, ㉡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문단이나 문장 간의 긴밀한 결합력을 높인다.
- ② 풍성하고 질 높은 글의 내용 생성에 기여하고 있다.
- ③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모든 문장과 문단이 여러 주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이어지는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81.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2점]

- ①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②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③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 ④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⑤ 두 귀를 쪽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82.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니던 영화관이다. /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닌 영화관이다.
 ㄴ. 하던 일을 마저 해치우자.
 ㄷ. *어머님이 출생하시던 곳은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ㄹ.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 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ㅁ. 즐겁던 그 시절이 그리구나. / 즐거웠던 그 시절이 그리구나.
 *: 비문법적임을 표시함.

[2점]

- ① ㄱ으로 보아, '-던'과 '-니'는 과거의 일에 쓰일 수 있군.
- ② ㄴ으로 보아, '-던'은 하다가 중단된 일을 나타낼 수 있군.
- ③ ㄷ으로 보아, '-던'은 과거에 완료된 일회성 행위에 쓰일 수 없군.
- ④ ㄹ로 보아, '-었던'은 '-던'에 비해 일이 완결된 상황을 나타낼 수 있군.
- ⑤ ㅁ으로 보아, '-었던'은 '-던'과는 달리 어떤 기간에 벌어진 일을 나타내는 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8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피동 표현의 유형이 같은 것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 피동 표현: 주어가 남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일을 표현한 것
 • 파생적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등을 붙이는 경우
 • 통사적 피동: 서술어에 '-아/어지다'를 붙이는

보기2
 ㄱ. 고전은 시대를 초월해 읽힌다.
 ㄴ. 적군에 의해 다리가 끊어졌다.
 ㄷ. 그가 옛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ㄹ. 동생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다.

[2점]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84.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 주체 높임법: 서술의 주체(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를 높이는 방법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객체 높임법: 서술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를 높이는 방법

보기2
 ㄱ. 그녀가 할머니께 모자를 사 드렸다.
 ㄴ. 삼촌께서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ㄷ. 엄마, 숙부께서 할아버지를 뵙자고 하시네요.
 ㄹ. 선생님, 이번에는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오.

[2점]

- ① ㄱ의 '드렸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② ㄴ과 ㄷ의 '께서'와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③ ㄷ의 '뵙자고'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④ ㄷ의 '오'와 ㄹ의 '-십시오'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군.
 ⑤ ㄹ의 '말씀'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낮춘 것이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85. 다음은 '시제'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하는데,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는 '>', '=', '<'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인 경우는 '사건시 > 발화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 문장의 경우는 어떠한지 부등호 혹은 등호로 표시해 보자.
 (1) 내 동생은 지금 바깥에서 공을 찬다. → 사건시 [a] 발화시
 (2)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 사건시 [b] 발화시
 (3) 우리는 내일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 사건시 [c] 발화시

- (a) (b) (c)

[2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86. <보기>에 나타난 시간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a.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b.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
 (나) a.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린다.
 b. 누군가가 오는 기척이 들렸다.
 (다) a. 건희는 서울에 가다가 왔다.
 b. 건희는 서울에 갔다가 왔다.
 (라) a. 민지는 지금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b. 민지는 내일쯤이면 부산에 가 있겠다.

[2점]

- ① (가): a의 '-은'은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고, b의 '-는'은 현재의 시제를 나타낸다.
 ② (나): a의 '-는'과 b의 '-는'은 모두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③ (다): a의 '가다가'와 b의 '갔다가'는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나타낸다.
 ④ (다): a의 '가다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단한 것을 b의 '갔다가'는 목적지까지 도착했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라): a와 b의 '-겠-'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87.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업 게시판>
[질문]
 오늘 어떤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쓰려고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고 써야 할지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개가 사람을 물었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쓸지 피동문을 쓸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적주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즉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쓰면 '사람이 물린' 상황보다는 '개'의 행위가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2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88.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영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 파란색을 좋아하니?

[2점]

- ① 자리에 앉게.
 ② 자리에 앉으오.
 ③ 자리에 앉아라.
 ④ 자리에 앉아요.
 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문제는행

89. 다음은 국어의 문장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과제	국어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원래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문장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

탐구할 문장	ㄱ.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시끄러워 공부가 안 되네. ㄴ. (야외 활동 중 친구에게) 먹구름이 몰려오네. ㄷ.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김 대리는 안 추워? ㄹ.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 ㅁ. (몸서 무더운 날 후배에게) 야, 정말 목이 타는구나!
--------	--

[2점]

- ① ㄱ의 문장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는 명령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② ㄴ의 경우, 청자가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청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 ③ ㄷ의 문장을 "김 대리, 에어컨 좀 꺼 줘."로 바꾼다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ㄹ의 경우, 청자가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 ⑤ ㅁ의 경우, 청자가 화자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면 청자는 화자가 말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다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정경 실천마무리 국어A

90. <보기>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 방 정리를 ㉠ 하고 있구나.
 아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 내놓았어요.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 쥐 버렸어요.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2점]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5번

91. 각 예문에 해당하는 문장 종결 표현을 골라 비르게 연결해 보자.

- | | | | |
|-------|---|---|----------------------|
| ① 평서문 | • | • | ㉠ 형,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겠어. |
| ② 감탄문 | • | • | ㉡ 다음 열차는 몇 시에 도착할니까? |
| ③ 의문문 | • | • | ㉢ 철수는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
| ④ 명령문 | • | • | ㉣ 집에 일찍 들어가라. |
| ⑤ 청유문 | • | • | ㉤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점]

[9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수확 체증'의 특징은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잘 나가는 반면 한 번 실패한 것은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던 제품이나 기업이 행운에 의해서든 아니면 우수한 전략에 의해서든 일단 시장 지배에 성공하고 나면 수확 체증의 메커니즘에 따라 그 우위성은 더욱 ㉠확대되어지고 그 제품과 기업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

(나)

연도	재래시장 (조 원)	대형 마트 (조 원)
02	41.5	17.4
03	36	19.5
04	35.2	21.5
05	32.7	23.5
06	29.8	25.4
07	28.9	26.7
08	30.7	25.9

○○구청 관계자 : 지난 2002년부터 대형 마트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현재는 대형 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골목 상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저희 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대형 마트의 영업에 대해 저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령 개정이나 중앙 정부의 정책 등이 없이는 저희도 지금의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 ○○구청 관계자 인터뷰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92. 문장 표현상, ㉠과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문장은?

[2점]

- ① 아버지는 식탁에서 서재로 옮기고 있다.
- ② 이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렸다.
- ③ 경찰관이 앞서 가던 차량을 정지시키게 했다.
- ④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절대로 다 읽어야 한다.

①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93. <보기>의 '이중 피동'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被動文)이라 하는데, 피동사는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하고, '-되다', '-어지다', '-게 되다'가 붙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중 피동은 이러한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데, 어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점]

- ① 그의 말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 ② 그 길은 소나무 숲에 가려져 있었다.
- ③ 그곳에서는 고기가 정말 잘 잡혀진다.
- ④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되어진다.
- ⑤ 그 일 이후 그녀가 매우 가련하게 보여졌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94.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능동문	피동문
엄마가 야기를 안았다.	야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

[2점]

- ①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있군.
- ②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군.
- ③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에 부사격 조사가 붙는군.
- ④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능동문과 피동문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군.
- ⑤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95. <보기>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사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는 주동사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가 있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면 된다.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 때는 접미사 '-이-, -히-, -기-, -리-, -우-, -구-, -추-' 등을 사용한다.
㉠ (주동문) 동생이 운다. ⇒ (사동문) 형이 동생을 울린다.
㉡ (주동문) 동생이 옷을 입는다. ⇒ (사동문) 엄마가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

[2점]

- 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군.
- ②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겠군.
- ③ ㉠은 ㉡과 다른 접미사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군.
- ④ 사동문에서는 주동문과 다른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는군.

⑤ 주동문의 동작 주체가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96. <보기>를 참고하여 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어지다' 등에 의해 만들어진다.

[2점]

- ① '그녀의 웃음소리는 참 간드러졌다.'에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② '그가 나에게 영영이를 물렸다.'에는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③ '그는 얼굴을 고양이에게 긁혔다.'에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④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어려운 시기를 넘기더니 그는 완전히 새사람으로 뒤바뀌어 있었다.'에는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97.

(나)를 고려하여 (가)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영수: 비가 오니 내일 소풍은 다 ㉠갔다.
소연: 작년 소풍 전날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소풍날에는 비가 안 왔잖아.
영수: 아, ㉢그랬지. 요새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 이럴 때 꼭 소풍을 가야 하는데…….
소연: 맞아. 그런데 지금 몇 시야? 벌써 아홉 시네.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흔났다.
(나) 국어사전 검색 결과: '-었-/~았-/~였-'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2점]

- ① ㉠: 내일 소풍을 못 가게 될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② ㉡: 소풍 전날에 비가 온 것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 ③ ㉢: 대화 상대가 말한 내용이 발화시에 와서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 꽃들이 예쁘게 핀 상태가 발화시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엄마에게 혼날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98. 다음 대화 중 주체 놓임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은?

ㄱ. 지선: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
ㄴ. 수지: 특강 때문에 병원 가신다고 아까 나가셨어요.
ㄷ. 지선: 맞다, 며칠 전부터 편찮으시다고 하셨지.
ㄹ. 수지: 연세가 많으셔서 더 힘드시가 봐요.
ㅁ. 지선: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특강도 쉽게 낫는다니 다행이지요.

[2점]

문제은행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99. 다음은 부정 표현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부정 표현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선생님: 고향에 다녀왔니?
 학생: 아니요.
 선생님: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거니, 다녀오지 않은 거니?
 (나) 어머니: 이 꽃병은 만지지 마라.
 아들: 네, 안 만질게요.
 (다) 이 옷은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
 (라) 소현: 저 영화 보는 거 어때?
 철이: 우리 저 영화 보지 않았니?
 (마) 영수가 책을 안 샀다.

[2점]

- (1) (가):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나): 명령문에는 평서문과 달리 부정 표현으로 '아니하다(않다)'가 사용되지 않는다.
 (3) (다):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과 관계없는 상태 부정 표현에 해당한다.
 (4) (라): 부정 표현을 통해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5) (마): 부정의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00.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업원: 손님, ㉠발이 정말 예쁘세요.
 손님: 그래요? ㉡고마워요.
 종업원: ㉢이 신발이 손님께 잘 어울리겠어요.
 손님: 정말요? ㉣그럼 이걸로 살게요.
 종업원: 발 크기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 240mm요.
 종업원: (한참 찾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크기의 상품은 다 떨어지셨네요.

[2점]

- (1) ㉠: 서술어에 '-세요'를 썼으므로 주어에 '께서'를 붙여야 한다.
 (2) ㉡: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3) ㉢: 객체인 '손님께'를 높이기 위해 '-시-'를 써야만 한다.
 (4) ㉣: 대화 상대방을 높임 필요가 없으므로 '요'를 빼야 한다.
 (5) ㉤: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101.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자.

- (1) 저기 앞에 가는 철수를 불러라.
 (2)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3) 어제 읽은 책은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4) 예쁜 꽃을 보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5)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Blank box for answer]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2점]

102. 다음 문장을 '해체'의 부정 명령문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라.

[2점]

- (1)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
 (2)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
 (3)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세요.
 (4)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않게.
 (5)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103.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니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2점]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5번

104.<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lank box for answer]

<보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냐?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단다.

[2점]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4번

105. <보기>를 바탕으로 '갈다'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갈다 ¹ ㉠ 【...을 ...으로】 ㉡ [예] 컴퓨터의 부속품을 새 것으로 갈았다.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예] 책임자를 진문가로 갈았다. 갈다 ² ㉣ 【...을】 ㉤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 건에 대고 문지르다. [예] 기계로 옥을 갈아 구슬을 만들었다. ㉥ 잘게 부수기 위하여 단단한 물건에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 으깨다. [예] 앓월에 녹두를 갈았다. 갈다 ³ ㉦ 【...을】 ㉧ 쟁기나 트랙터 따위의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 [예] 경운기로 논도 갈고 지게질로 객토도 했다.
--

[2점]

- ① '갈다'와 '갈다²'와 '갈다³'은 발음이 같을 뿐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관계이겠군.
- ② '갈다'의 ㉠에 들어갈 뜻은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이겠군.
- ③ '갈다²'의 ㉣의 용례로, '숫들에게 칼을 갈았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갈다²'의 뜻과 '자면서 뽀드득뽀드득 이를 갈다.'의 '갈다'는 서로 뜻이 같겠군.
- ⑤ '갈다³'의 유의어로 '일구다'를 사용할 수 있겠군.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106.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반의 관계의 성립 요건 반의 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오직 한 개의 의미
--

보기2 ㉠ 남편 : 아내 ㉡ 국내 : 국외 ㉢ 많다 : 적다 ㉣ 서다 : 앉다 ㉤ 주다 : 받다
--

[2점]

- ① ㉠은 모두 [인간, 부부]라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 ② ㉡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오순 관계가 성립된다.
- ③ ㉢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
- ④ ㉣의 '서다'가 '엎추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서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는 '가다'를 들 수 있다.
- ⑤ ㉤는 ㉠과 달리 두 단어 사이에서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07. <보기>의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의어 중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는 동시 부정 가능성이 증대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쉽다/어렵다'를 예로 들면 '쉽지 않다/어렵지 않다'가 가능하고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어는 동시 긍정이 불가능하며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다. 한편 '출발/도착' 등과 같이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어도 존재한다.

[2점]

- ① ㉠: 달다/쓰다 ② ㉡: 덜다/춥다
- ③ ㉢: 삼/죽음 ④ ㉣: 길다/짧다
- ⑤ ㉤: 들어가다/나오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08. <보기>는 '부르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이를 활용한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르다 ¹ 「동사」 활용 정보: 불러, 부르니 [1] 【...을】 「1」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지나가는 친구를 큰 소리로 불렀다. 「2」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출석을 부르다. 「3」 남이 자신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또박또박 읽다. ㉢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의사를 집에 부르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부린다. ㉤ 앞으로 우리는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할 것이다. 부르다 ² 「형용사」 활용 정보: 불러, 부르니 【...이】 「1」 (주로 '배'와 함께 쓰여) 먹은 것이 많아 속이 꼭 찬 느낌이 들다. ㉠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었다. 「2」 불룩하게 부풀어 있다. ㉡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르다.
--

[2점]

- ① 동사로 쓰인 '부르다¹'과 형용사로 쓰인 '부르다²'는 동음이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로군.

- ② '부르다¹'은 '부르다²'와 달리 문장 구조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군.
- ③ '부르다¹'과 '부르다²'의 활용 정보로 보아, '부르다'가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군.
- ④ '부르다¹'과 '부르다²'는 모두 다의어라고 말할 수 있겠군.
- ⑤ '배가 부른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부르다²' 「2」의 예문으로 추가할 수 있겠군.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109.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탕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동 [··음]

-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 /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내게 하다.
▶ 손뼉을 치다 / 파이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려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동 [··음]

-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 / 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재벌 무성하다.

[2점]

- ① '치다¹'과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¹'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¹'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²'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²'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들 쳐 냐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10. <보기>에서 설명한 언어 현상이 나타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자리에 착석(着席)하다.'는 의미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표현이다. '착석(着席)'에 이미 '자리[席]'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다.' 정도로 써도 충분하다. 이런 현상은 흔히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쓸 때에 발생하는데, 굳이 의미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다듬어 쓰는 것이 좋다.

- ㉠ 이 문제에 대해 짧은 소견(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 ㉡ 그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난관(難關)에 부딪혔다.
- ㉢ 그는 남은 여생(餘生)을 여행을 다니며 보내기로 결심했다.
- ㉣ 그들은 수많은 시도 끝에 오랜 숙원(宿願)을 이룰 수 있었다.
- ㉤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지에 미리 답사(踏査)를 다녀왔다.

[2점]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11. 다음은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의어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 쌍의 단어를 말한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반의의 개념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개념들 사이에서 교집합이 없이 쌍을 이루는 것으로 ㉠선언 개념(選言概念)이 있다. '동물'과 '식물' 같은 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동물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식물에 속할 수 없다. 그 다음에는 개념들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상호 의존도가 큰 ㉡상관 개념, 상호 의존도가 작은 ㉢상대 개념이 있다. '스승'과 '제자'처럼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들이 상관 개념에 속하며, '바다'와 '육지'처럼 어느 한쪽이 없다고 하여 다른 쪽이 반드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닌 단어들이 상대 개념에 속한다. 그리고 끝으로 중간적 존재가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모순 개념과 ㉣반대 개념으로 나뉜다.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을 모순 개념이라 하고, 중간적 존재가 있는 것을 반대 개념이라 한다. 모순 개념에는 '있음'과 '없음'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며, 반대 개념에는 '크다'와 '작다' 같은 단어가 포함된다.

[2점]

- ① ㉠: '생물'과 '무생물'
- ② ㉡: '남편'과 '아내'
- ③ ㉢: '물'과 '불'
- ④ ㉣: '흰색'과 '검은색'
- ⑤ ㉣: '길다'와 '짧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112.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대화에서 ㉠~㉣의 기본형 '들다'가 국어사전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은?

(가) **들다** ㉠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인다. ㉡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 ㉢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 ㉣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

들다 ㉡ 날이 날카로워 물건이 잘 베어지다. ㉢ 속뜻 같은 기계가 익히는 원료를 쉽게 받아들여 처리하다.

들다 ㉣ 손에 가지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나) 손님 : 할 중 같아 주세요. 날이 잘 안 ㉠들어요.
고치는 데 얼마나 ㉡들어요?
주인 : 음, 이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손님 : 그 말이 아니고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주인 : 아, 예, 4천 원요.
손님 :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짝아 주세요.
주인 : 그럼 3천 원에 해 드릴게요.
손님 : 고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찾으러 올게요.
주인 : 그러세요, 내일 보시면 아마 마음에 췌 ㉣들 겁니다.

[2점]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113.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중의성을 []에 제시된 의미나 상황에 맞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a.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그림에 아버지가 그려져 있음.]
- b. 내 친구와 그녀가 올해 결혼하였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함.]
- c.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몇 사람은 오지 않았음.]
- d. 그가 웃는 것이 이상하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함.]
- e.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녀의 표정이 밝음.]

[2점]

- ① a: '-의'를 '-를 그린'으로 교체한다.

질문: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계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2점]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출처: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B형>12번

119. <보기>는 표준 발음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ㅎ'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ㅎ(ㄹ, ㄷ)'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 ㄷ, 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2.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ㄹ, 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ㄷ'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
 3. 'ㅎ(ㄹ,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2점]

- ① 그렇게 **말던**[만 : 턴] 일이 이제 끝났어.
- ② 이 학교에 **입학**[입팍]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③ 사람마다 물건을 **놓는**[논는] 방식이 다르더라고.
- ④ 이상하게도 점심 식사 후에 속이 부글부글 **끓네**[끓레].
- ⑤ 좋지 않은 습관을 **끊은**[끄는] 뒤부터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120. (ㄱ)은 남한과 북한 사전의 자모를 배열 순서이다. 이를 참고하여 (ㄴ)의 단어들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음자	(ㄱ)		(ㄴ)	
	남한	북한	남한	북한
	ㄱ, ㅋ, ㆁ,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ㄱ, ㅋ, ㆁ,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ㄴ) 향기, 깨, 이름, 행동	
	남한	북한
①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행동, 깨, 이름
②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행동, 이름, 깨
③	깨, 이름, 행동, 향기	향기, 이름, 깨, 행동
④	이름, 향기, 행동, 깨	향기, 이름, 깨, 행동
⑤	이름, 향기, 행동, 깨	향기, 행동, 깨, 이름

[2점]

- ㉠
- ㉡
- ㉢
- ㉣
- ㉤

출처: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B형

12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랑년]'이 맞나요?
 ㄷ. '걸으로'를 '[거즈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ㅁ. '낮'은 '방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중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2점]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12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2점]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퍼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123. 다음은 겹받침 'ㄹ'과 'ㄷ'의 발음에 관해 영미가 필기한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미의 공책]	
대원칙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 예) 닦다[닥따], 앉다[안따], 있다[을따], 외곶[외곶], 접다[정 : 따], 갓[갓], 강[강]
기본 원칙	겹받침 'ㄹ'... (㉡) 겹받침 'ㄷ'... (㉢) 예) 여덟[여덜], 넓다[널따] 예) 읽다[익따], 맑지[막찌], 흙[흙], 흙과[흙과]
예외	'ㅁ-'의 경우... (㉣) 'ㅂ-'의 경우 예) 밟고[밥 : 꼬], 밟지[밥 : 찌] 예) 읊조리다[넙추카다], 넙동글다[넙동글다]

[2점]

- ①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 ②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 ③ ㉢: 자음 앞에서 [ㅁ :]으로 발음
- ④ ㉣: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
- ⑤ ㉤: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124. <보기 1>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보기 1</p> <p>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있어[이써] 낮이[나지]</p> <p>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낮이[낙씨] 얹어[안자] 갓을[갓쓸]</p> <p>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쫓아미[저더미] 맛있다[마을따] 헛웃음[허두슴]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싹따], [머싹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녀 없다[너겟따] 닭 앞에[다가페]</p> <p>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글을[디그슬] 지웃을[지으슬] 치웃을[치으슬] 키웁을[키으글] 티웁을[티으슬] 피웁을[피으블] 히웁을[히으슬]</p>

<p>보기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을 살피러 나갈 때는 <u>겉웃만</u>이라도 단단히 입어라. • 그 <u>웃이</u> 그 정도의 <u>값어치</u>가 있을까? • 티웁과 디글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2점]

- ① 제14항에 따라 '닭을'은 겹받침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을'과 결합되는 경우로 뒤엣것을 옮겨 [다글]로 발음한다.
- ② 제15항에 따라 '겉웃'은 받침 'ㅌ'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ㅌ'을 대표음인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거뜰]으로 발음한다.

- ③ 제13항에 따라 '웃이'는 출발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되는 경우로, 자기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오시]로 발음한다.
- ④ 제15항의 [붙임]에 따라 '값어치'는 겹받침 'ㅌ'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겹받침 중 하나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가비치]로 발음한다.
- ⑤ 제16항에 따라 한글 자모의 이름인 '디글은'은 특별히 [디그슬]으로 발음한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정경 실전마무리 국어B

125. (가)를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가) 제5항 'ㅈ,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놀리리 띄어쓰기 써어 띄어 희양 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p> <p>(나) 지식의 소중함</p>

[2점]

- ① '지식의'는 '[지시계]'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 ② '지식의'는 '[지시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지식의'를 '[지시기]'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다.
- ④ '지식의'를 '지혜의'로 바꾸면 '의'의 발음도 달라진다.
- ⑤ '지식의'에서 '의'의 발음은 '법칙의 발견'에서 '의'의 발음과 동일하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126. <보기>는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보기</p> <p>❖ 남한의 '표준 발음법'</p> <p>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발음한다. 예) 낮[낙] 앉다[안따] 넓고[널꼬] 외곶[외곶] 할다[할따] 갓진[갓진] 다만, 'ㅁ-'은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고, 'ㅂ-'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ㅂ]으로 발음한다. (1) 밟소[밥 : 쏘] 밟지[밥 : 찌] 밟는[밥 : 는 → 밟 : 는] 밟게[밥 : 께] 밟고[밥 : 꼬] (2) 넙-죽하다[넙추카다] 넙-동글다[넙동글다]</p> <p>❖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p> <p>제9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 받침 <ㄱ, ㄷ, ㅈ, ㅊ, ㅋ, ㆁ>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ㄱ]으로 발음한다. 예: 낮살 [낙쌌] 푹다 [북따] 부엌세간 [부억세간] 낚시 [낙시] * 받침 <ㄷ, ㄹ, ㅌ, ㅍ>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ㅂ]으로 발음한다. 예: 밟다 [밥따] 읊다 [읍따] 놀다 [늘따] 그러나 받침 <ㄹ>은 그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불이*가 올 때는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예: 넓고넓은 [널꼬널븐] 넓구나 [널꾸나]</p> <p>* 호상관계: 상호 관계. * 무성자음: 성대(聲帶)가 진동하지 않고 나는 자음. * 토: 북한에서 조사, 접사, 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이르는 말.</p>
--

[2점]

- '값도'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갑도]로 발음해야 옳은 것이군.
- 겹받침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특정한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군.
-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겹받침 발음이 항상 동일하군.
- 자음 앞의 '받-'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군.
- 남한과 북한은 모두 특정 어간이나 단어의 겹받침 발음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어 있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127.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7항 소리의 첨가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막-일[망닐]	내륙-약[내 : 룡낙]
담-요[담 : 뇨]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넋가[내/까/넛/까]	콩등[콩똥/콩똥]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콩날[콩날 → 콘날]	뒹마루[뒹/마루 → 뒹/마루]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뒹웃[뒹/눈 → 뒹/눈]	깨잎[깨/잎 → 깨/잎]

[2점]

- ① '뺨머리'는 사이시옷 뒤에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뺨머리]로 발음한다.
- ② '베갯잇'은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베갯잇 → 베갯잇]으로 발음한다.
- ③ '깃발'의 'ㅅ'은 [ㄷ]으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깃발'은 [깃발]로도 발음한다.
- ④ '한여름'은 접두사인 '한'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어'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한여름]으로 발음한다.
- ⑤ '송이불'은 앞 단어인 '송'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기 때문에 'ㄴ' 음을 첨가하여 [송니불]로 발음한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정경 실전마무리 국어B

128. <보기>의 규정을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예) 다치어 → 다쳐[다쳐]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ㄷ'은 [ㄱ]로도 발음한다. (예) 계집[계 : 집/계 : 집]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예)	

[2점]

- ① 전자시계: [시계]로 발음해도 되고, [시계]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② 민주주의: [주의]로 발음해도 되고, [주이]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③ 유희적 태도: [유희]로 발음해도 되고, [유히]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④ 우리의 집: [우리의]로 발음해도 되고, [우리예]로 발음해도 상관없겠군.
- ⑤ 가져갈 물건: [가져]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가저]로 발음해야만 하겠군.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129. 다음 제시된 탐구 과정에서 ㉘에 들어갈 사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제기	'ㅈ, ㅊ, ㅋ, ㆁ'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린 말은 어떻게 줄여 적을까?
가설 설정	'ㅈ, ㅊ, ㅋ, ㆁ'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려 줄여 적는 예는 준 대로 적을 것이다.
가설 검증	㉘
원리 도출	'ㅈ, ㅊ, ㅋ, ㆁ'로 끝난 어간에 '-이-'와 '-어'가 어울려 줄여 적는 예는 'ㅈ, ㅊ, ㅋ, ㆁ'을 'ㅈ, ㅊ, ㅋ, ㆁ'로 적은 뒤 '-어'를 붙이거나, '-이-'와 '-어'를 '여'로 줄여 적는다.
일반화	도출된 원리는 '파이어', '쏘이어', '쓰이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보기	
ㄱ. 물건이 보자기에 싸이어 있었다.	→ 싸어, 싸어
ㄴ. 산봉우리가 보이어 기분이 좋아졌다.	→ 뵈어, 보어
ㄷ. 아이에게 오줌을 누이어 재우도록 했다.	→ 뉘어, 누어
ㄹ. 이 부분은 같은 간격으로 띄어 써는 것이 좋겠다.	→ 띄어, 띠어

[2점]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130. 다음은 된소리되기에 관한 질문과 관련 표준 발음법 규정을 연결한 것이다. 연결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은?

질문	관련 규정
① '평등(平等)[평등]의 '등'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갈등(葛藤)[갈등]의 '등'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② '여덟과[여덟과]의 '과'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넋계[넋계]의 '계'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③ '개미집[개 : 미집]의 '집'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열침[열침]의 '집'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ㅍ, ㅊ, ㅈ, ㅉ), ㅂ(ㅂ, ㅃ,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활(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④ '뒹밭[뒹 : 밭]의 '밭'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아침밥[아침밥]의 '밥'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⑤ '사기(士氣)[사 : 기]의 '기'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면서, '인기(人氣)[인기]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어떤 규정과 관련될까?	

[2점]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13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 ㉠~㉣의 발음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ㆁ, ㅅ]으로 발음한다.
제13항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보기	
•밥 짓는 냄새가 부엌에서 [㉠] 풍겨 왔다.	
•강아지가 부엌 안 [㉡]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부엌이 [㉢] 넓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	

- ㉠ ㉡ ㉢

[2점]

- ① 부어게서 부어칸 부어키
 ② 부어게서 부어칸 부어기
 ③ 부어게서 부어간 부어키
 ④ 부어게서 부어간 부어기
 ⑤ 부어게서 부어간 부어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132.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참조하여 이중 모음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ㅑ'는 [ㅑ]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ㅓ'는 [ㅓ]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ㅑ]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2점]

- ① '다만 1'에 따라, "살이 찌서 고생이다."의 '찌'는 [찌]로 발음해야 한다.
 ② '다만 2'에 따라, '주례사(主禮辭)'는 [주례사]가 아닌 [주례사]로 발음해야 한다.
 ③ '다만 3'에 따라, "모자를 씌웠다."의 '씩'는 [씩]와 [씨]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④ '다만 4'에 따라, "거의 다 왔다."의 '거의'는 [거의]와 [거이]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⑤ '다만 4'에 따라, '우리의 소원'의 '우리의'는 [우리의]나 [우리에]로 모두 발음해도 된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133. 다음은 표준 발음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이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2장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2. '예, 레' 이외의 'ㅑ'는 [ㅑ]로도 발음한다.

다만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ㅓ'는 [ㅓ]로 발음한다.

다만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ㅑ]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ㅑ
		e

2. 이중모음

ㅑ	ㅓ
ye	ui

[붙임1] 'ㅓ'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2점]

- ① '송례문'에서 '례'의 'ㅑ'는 [ㅑ]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② '도예촌'에서 '예'의 'ㅑ'는 [ㅑ]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e'로 표기할 수 있다.
 ③ '퇴계원'에서 '계'는 '예, 레' 이외의 'ㅑ'이어서, [ㅑ]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④ '충의사'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이어서, [ㅣ]로 발음되나 'ui'로 표기해야 한다.
 ⑤ '광희문'에서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어서, [ㅣ]로 발음되므로 'i'로 표기해야 한다.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B형>14번

134. 다음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자.

- (1) 80대 이상의 어른들 말은 10대 청소년들의 말과 상당히 다르다. ()
 (2) 제주도 말에는 예전의 ':(아래아)'에 해당하는 모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3) 남자들이 쓰는 말과 여자들이 쓰는 말에는 차이가 있다. ()
 (4)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술'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다.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2점]

135. <보기>를 토대로 'ㅓ'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5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ㅓ'는 [ㅓ]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ㅑ]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2점]

- ① '희망'의 첫음절의 '희'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야 할 것 같군.

- ① '환희'의 둘째 음절의 '희'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야 할 것 같군.
- ② '민주주의의 의의'의 두 번째 '의'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도 될 것 같군.
- ③ '민주주의의 의의'의 세 번째 '의'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도 될 것 같군.
- ④ '민주주의의 의의'의 네 번째 '의'는 단모음 [ㅣ]로 발음해도 될 것 같군.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경 실천마무리 국어B

[136](가)는 발음 오류를 지적한 것이고, (나)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이다.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가) ㄱ. '흙이, 흙을'을 [흐기], [흐글]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ㄴ. '넓다, 넓고'를 [넙따], [넙꼬]로 발음하면 표준 발음에 어긋난다.
 ㄷ. 접미사 '-님'이 결합된 '해님'을 [해님]으로 발음하면 안 된다.
 (나) a.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b.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c. 받침 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허용한다.
 d.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e.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 자음을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한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136. (가)의 ㄱ, ㄴ, ㄷ을 올바른 발음으로 고친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ㄱ	ㄴ	ㄷ
①	[흙기], [흙글]	[넙다], [넙고]	[해님]
②	[흐키], [흐글]	[넙따], [넙꼬]	[해님]
③	[흐키], [흐글]	[넙다], [넙고]	[해님]
④	[흙기], [흙글]	[넙따], [넙꼬]	[해님]
⑤	[흙기], [흙글]	[넙따], [넙꼬]	[해님]

[2점]

☺ ☺ ☺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137.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발음 자료	수정 사항
①	뵤[바:]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ㅌ'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뵤:]'로 발음한다.
②	담임[다님]	'ㅌ'를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임]'으로 발음한다.
③	밭을[바술]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술]' 대신 '[바출]'로 발음한다.
④	젓다[젓: 따]	중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젓: 따]' 대신 '[젓: 따]'로 발음한다.
⑤	참말[참말:]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2점]

☺ ☺ ☺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138.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질문 】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게 되?
-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2점]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출처 : 2014>고3 4월 학평(경기)>국어 B형>12번

139.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문장 성분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문장을 이루는 요소인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처럼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이 있고,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어처럼 다른 성분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 성분이 있다.

보기2
 ㄱ.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ㄴ. 그녀는 학자가 되었다.
 ㄷ. 아야, 이가 너무 아프다.
 ㄹ. 삼촌이 새 자동차를 샀다.
 ㅁ. 그는 설익은 밥을 재빨리 먹었다.

[2점]

- ① ㄱ과 ㄴ은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ㄷ은 독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③ ㄹ과 ㅁ은 주성분인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④ ㄷ과 ㅁ은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동일한 문장이다.
- ⑤ ㅁ은 ㄷ, ㄹ에서 부속 성분으로 사용된 문장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40. 다음 내용을 학습한 학생들이 <보기>의 ㄱ~ㅁ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어떤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 또는 부사어 중 하나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서술어는 문장 성분을 세 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보기
 ㄱ. 얼음이 물이 되었다.
 ㄴ.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ㄷ. 이것이 실물과 똑같아요.
 ㄹ.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ㅁ. 그는 교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다.

[2점]

- (1) ㄱ: '되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2) ㄴ: '피다'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3) ㄷ: '똑같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4) ㄹ: '먹다'는 주어 외에도 관형어와 목적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5) ㅁ: '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4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작은 단위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단위에 포함된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로, 주어나 서술어는 발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보기 2
 영호 : 수희야, 지금 어디 가㉠니?
 수희 : ㉡학교. 너는 어디 ㉢가?
 영호 : ㉣집에 가.
 수희 :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렇지 않니?
 영호 : 그래.

[2점]

- (1) ㉠과 ㉡은 단어이다.
- (2) ㉢의 '에'는 단어이다.
- (3) ㉣과 마찬가지로 ㉤도 문장이다.
- (4) ㉥은 한 단어에 해당한다.
- (5) ㉥은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천마무리 국어A

14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다) 부모님께서 선물을 동생에게 주셨다.

(라) 그는 나에게 편지를 주었다. [2점]

- (1) (가)의 '얼음이'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 (2) (나)의 '얼음으로'는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 (3) (다)의 '동생에게'와 (라)의 '나에게'는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 (4) (다), (라)에서 서술어 '주다'는 세 개의 문장 성분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가)~(라)를 통해 서술어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43. <보기>를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에 관한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
 ㄴ. 그녀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ㄷ. 민정이는 발에 땅이 나도록 걸었다.
 ㄹ. 지금은 영화관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

[2점]

- (1) ㄱ에서 '인정이 많으시다'는 '아버지께서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서술절입니다.
- (2) ㄴ의 '뺨에 흐르는'은 '눈물'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입니다.
- (3) ㄷ의 '발에 땅이 나도록'은 '발에 땅이 나다'에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입니다.
- (4) ㄹ에서 '영화관에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5) ㄴ의 '뺨에 흐르는'과 ㄷ의 '발에 땅이 나도록'은 모두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44. 다음 밑줄 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안과 그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피해자의 친구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해 주고 있었다.

	수정 방안	수정 결과
①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②	문장의 접속 표현을 의미에 맞게끔 고친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③	중의적인 표현을 없애기 위해 수식하는 말을 넣어 준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④	의미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명확한 단어로 바꾼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⑤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2점]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문제은행

145. 밑줄 친 부분 중 주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2점]

- ①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 ② 민수는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
- ③ 모든 인간은 불을 사용해 왔다.
- ④ 어린 시절의 그리운 친구를 만났다.
- ⑤ 다리가 긴 타조가 성큼성큼 뛰어간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146.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시간이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2점]

-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동생: ㉠아, 목마르다.
누나: 자, 물 여기 있어.
- ②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 ㉡창문이 열렸네.
학생: 네, 닫을게요.
- ③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행인 A: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 ④ (웃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언니: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지?
동생: 알았어. 내 옷 입을게.
- ⑤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제자: 선생님,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 마실게.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47. <보기>에 드러난 인터넷 메신저상의 매체 언어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민기: 친구야, 아까 과자 맛있었지??
창완: 응, 그 과자 진짜 맛있더라.
민기: 그나저나 오늘 참 찜했지?
창완: 우와, 난 진심 발꼬락 어는 줄 아라씨.ㅠㅠ
민기: 낯은 옷 따시게 입구 학교 오심.
창완: 그래, 안뇽.

[2점]

- ① 언어 규범이 파괴되는 현상을 말걸할 수 있군.
- ② 시각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하고 있군.
- ③ 줄임말을 사용한 것은 글자를 빨리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군.
- ④ 비공식적 상황이라서 시술어의 대상이 되는 필수 성분들까지 생략되었군.

①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수단을 통해 문자 언어의 제약 극복하고 있군.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48. (가)와 (나) 담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시에서는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품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주변 불량 식품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식품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자율 점검제'의 도입이다. 대상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이다. 자율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 기사문

(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학생회장 후보 ∞∞,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아마 대부분 불만해도 참고 지내거나 또 어쩌다가 의견을 이야기한다 해도 주변 한두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학교에서,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다들어 낸 의견은, 그러니까 학생회의 이름으로 결정하여 나오는 의견은, 제 생각에는 대표성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장 후보자 연설

[2점]

- ① (가)와 (나)의 담화 구조는 담화 생산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담화가 대상으로 삼는 수용자가 구체적이지 않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담화의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발화 중에 덧붙이는 말이 삽입되는 등 비체계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 ⑤ (가)는 담화 생산의 의도와 담화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하고 (나)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49. 다음 (ㄱ)~(ㅇ)의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A: 너, 배 고프지 않니? B: 아니, 팔로 안 고픈데.
(ㄴ) A: 너, 배 고프지 않니? B: 아직도 밥 안 먹었어?
(ㄷ) A: 너, 배 고프지 않니? B: 그건 갑자기 왜 물어?
(ㄹ) A: 너, 배 고프지 않니? B: 밥이나 먹으러 갈까?
(ㅇ) A: 너, 배 고프지 않니? B: 아직 밥 먹을 시간 안 됐는데.

[2점]

- ① 동일한 표현이라도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 ② 질문을 할 때 부정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에 혼동이 일어난다.
- ③ 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 ④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 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몸짓,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150. <보기 1>을 통해 <보기 2>의 발화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발화 행위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화자의 의

보기 2

성호: ○○대학교에 가려는데, 혹시 이 근처인가요?
 영화: 예, 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고는 지나쳐 버린다.)
 성호: (황당해하며) 근데, 가는 길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
 요?
 영화: 예?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성호: (허탈한 듯 웃으며)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영화: 아, 네, 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20m만 가시면 돼요.

[2점]

- ① 성호의 첫 번째 발화는 요청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간접 발화이다.
- ② 영화의 첫 번째 발화는 성호의 첫 번째 발화를 직접 발화로 이해한 결과이
다.
- ③ 성호의 두 번째 발화는 책망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간접 발화이다.
- ④ 영화의 두 번째 발화는 성호의 두 번째 발화를 직접 발화로 이해한 결과이
다.
- ⑤ 성호의 세 번째 발화는 직접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
고 있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51. 다음 ㉠, ㉡에 해당하는 담화의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 법원 판결문의 일부
 행정 처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
 3. 선고 2009두3460 판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행 처분들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신문 기사의 일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육포대학교 ○○ 교수 팀과 함께 지리산의 나방을 관찰한 결
 과 1,376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 서식하는
 나방 1,919종의 72%에 해당한다.

- ㉠ ㉡
- ① 호소 담화 약속 담화
 - ② 선언 담화 호소 담화
 - ③ 약속 담화 호소 담화
 - ④ 선언 담화 정보 제공 담화
 - ⑤ 호소 담화 정보 제공 담화

[2점]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학작특문A형

152. <보기 1>은 생활 담화의 문법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 2>에
 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보기 1

생활 담화에서는 하지 않아도 좋을 ㉠군말이 자주 나타나고, 대화 상대와 공유
 하고 있는 정보를 간단한 ㉡지시어를 통해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문장 성분
 이 생략되거나 ㉣문장의 어순이 뒤바뀌기도 하며 주로 ㉤출문장 위주의 간단한
 문장들이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보기 2

준수: 은주야, 하나만 물어보자.
 은주: 뭔데?
 준수: (과학 과제를 가리키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은주: 그거? 저번에 내가 말해 줬잖아, 어떻게 하는지.
 준수: 맞아! 왜 기억이 안 났지?
 은주: 하여튼 너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153. (가)를 (나)로 재구성했을 때, 고려했을 법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규정집 원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의 교부가 불가
 능하고 매입을 통해 발생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나)
 <정책 홍보 만화 '생활 속의 세금 상식' 대본>
 민원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시면 당연히 사업자 이름으로 된 세금 계산
 서를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또 사업을 위해 구입한 원자재 가격에 포함된
 세금도 공제받으실 수 없게 돼요.

[2점]

- ① 구어체에 적합한 종결 표현을 사용한다.
- ② 민원인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 ③ 복잡하게 이어진 문장을 나누어 재구성한다.
- ④ 어려운 일부 한자어는 쉬운 단어로 교체한다.
- ⑤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154.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적정보위원회
 한국정보진흥원

등돌린 자식

孝, 부모님을 향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입니다.
 '용돈 좀 드리면 되지', '다음에 전화하면 되
 지' 하며 여러분도 부모님께 점점 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세요.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
 리의 효도입니다.

[2점]

- ① 글자의 모양을 변형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화자가 청자와 같은 위치에서 청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표제에서 현상을 제시한 후 본문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청자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는 호소 담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155. <보기>는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

남성: 전국 곳곳의 숨어 있는 맛집을 알려 주는(↘) ㅇㅇ씨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여성: 이번엔 강원도 고성엘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정말 맛있는 도루묵찌개를 먹고 왔어요(↘). 저도 도루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랐는데요(↗), 이번에 가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남성: 도루묵찌개가 그렇게 맛있습니까(↗)? 구이나 조림으로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도루묵구이만 몇 번 먹어 봤지(↘), 찌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성: 정말로 처음이세요(↗)? 도루묵은 12월이 산란기여서요(↗), 지금 먹으면 알도 꼭 차 있고요(↗), 살도 땡글땡글 해서 찌개로 끓여 먹는 게 일품이에요(↘).

(↗: 상승조 억양, ↘: 하강조 억양)

[2점]

- 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로 격식적인 말투를 구사하고 있다.
- ②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등급의 상대 높임법을 구사하고 있다.
- ③ 여성은 남성과 달리 내용을 이어 말할 때 '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남성은 여성과 달리 평서형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을 때 하강조의 억양을 구사하고 있다
- ⑤ 남성과 여성 모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상승조의 억양을 구사하고 있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문제은행

1. 정답 : [㉓]
출처 : 2013 수능원성 국어A형

해설

음운 변동의 원리 이해 및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그런데 '꽃을'은 [꼬출]로 발음되기 때문에, ㉓의 적용을 받은 자음이 연음되는 것이 아니다. '꽃'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그것이 '을' 같은 형식 형태소라면 앞말의 받침소리가 그대로 연음되어 [꼬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꽃' 뒤에 오는 것이 '을' 같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 '위' 같은 실질 형태소라면, 그때는 받침소리가 7개의 대표음 중 하나인 '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기 때문에 [꼬뒤](혹은 [蚯 위])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는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국사발[국싸발]', '말다[말따]', '입고[입꼬]'에서는 모두 ㉓가 일어난다.
- ② ㉓는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물날리'는 [물랄리]로 발음되는데, 이는 [물란리]에 해당하는 유음화 [물날리]에 해당하는 유음화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㉓가 두 차례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㉓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비음 'ㅇ' 때문에 뒤에 오는 'ㄹ'이 비음 'ㄴ'이 된 비음화이다. 한편 '밭물'은 [밭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위의 비음 'ㄴ' 때문에 앞에 있는 'ㅂ'이 비음 'ㅃ'이 된 비음화이다. 따라서 두 단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⑤ ㉓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굴이'에서 '이'는 접미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㉓의 적용을 받아 '굴이' → [구디] → [구지]가 된다. 하지만 '견디다'에서 '디'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다. '견디-'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견디다'는 [견지다]로 발음되지 않는다.

2. 정답 : [㉑]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가머'는 '오- + 가- + -며'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 + 어근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㉑는 어근음, ☆는 굴절 접사(어미)를 가리킨다.

'치숫아'는 '치- + 숫- + -아'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 + 어근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는 파생 접사를 가리킨다.

'잡히다'는 '잡- + -히- + -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근 + 파생 접사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다. 즉 '-히-'는 파생 접사이며 ◇로 기호화된다.

'되살리고'는 '되- + 살- + -리- + -고'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파생 접사 + 어근 + 파생 접사 + 굴절 접사(어미)'의 결합이며, 이를 주어진 기호로 나타내면 '◇+㉑+◇+☆'가 된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3. 정답 : [㉑]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음운들의 공통점 추론

[가]의 밑줄 친 음운들이 지니는 공통점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공기를 막아서 내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은 조음 위치에서는 각각 연구개음, 치조음, 양순음으로 아무런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다. 이 자음들은 조음 방식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ㄱ, ㄷ, ㅂ'은 모두 특정한 조음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들이다. 또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중에서는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한 예사소리이다.
→ 'ㄱ'은 연구개음, 'ㄷ'은 치조음, 'ㅂ'은 양순음이므로 발음되는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
- ③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되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은 파열음이므로 마찰을 일으키며 발음된다고 할 수가 없다.
- ④ 음절 초성에는 쓰이지 못하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은 '가루, 달, 발' 등에서 보듯이 음절 초성에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자음들이다.
- ⑤ 모음 없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예사소리이다.
→ 'ㄱ, ㄷ, ㅂ'과 같은 자음들은 일반적으로 모음이 없으면 홀로 발음될 수 없다. 자음을 '달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음이 모음과 함께 쓰여야만 한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4. 정답 : [ㅍ, ㅌ, ㅋ, ㆁ]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음운의 특성 파악

[나]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음운을 모두 밝혀 적어 보자.

이 문제는 'ㅎ'과 다른 자음이 결합할 경우 일어나는 음운 현상에 대해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운 현상이 적용되었을 때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를 아는지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문제 풀이 방법]

'ㅂ, ㄷ, ㄱ, ㅈ'과 'ㅎ'이 합쳐지면 어떤 자음으로 바뀌는지를 묻고 있다. 'ㅂ, ㄷ, ㄱ, ㅈ'과 같은 예사소리는 'ㅎ'과 만날 경우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다만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뀐다. 따라서 'ㅂ'은 'ㅍ', 'ㄷ'은 'ㅌ', 'ㄱ'은 'ㅋ', 'ㅈ'은 'ㆁ'으로 변하게 된다.

5.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음운 현상 파악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 문제는 (가)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현상의 예를 잘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잘 읽은 후 각각의 설명에 부합하는 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 비웃 → [비운], (나) 좋지 → [조 : 치]
→ (가)는 음절 종성에 오지 못하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비웃'의 'ㅂ'이 'ㅍ'으로 바뀌는 예가 적절하다. (나)는 'ㅎ'과 'ㅂ, ㄷ, ㄱ, ㅈ'이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되는 현상이므로 '좋지'의 'ㅎ'과 'ㅂ'이 합쳐져 'ㆁ'이 되는 '좋지'가 올바른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 닭도 → [닥도], (나) 날은 → [나은]

→ '닭도'는 음절 중성에 온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과 'ㄱ' 위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적용된 예로서, (가)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날은'은 'ㅎ'이 'ㄷ, ㄸ, ㄱ, ㅈ'과 합쳐져 거센소리가 되는 예가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단순히 탈락하는 예이므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가) 콩밭 → [콩밭], (나) 앞도 → [압도]

→ '콩밭'은 음절 중성에 올 수 없는 'ㄷ'이 'ㄷ'으로 바뀌었으므로 (가)의 설명과 부합하는 예이다. 그러나 '앞도'는 'ㅎ'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나)의 설명과는 상관이 없는 예이다.

③ (가) 빛이 → [비치], (나) 먹는 → [멍는]

→ '빛이'는 선행하는 말의 받침이 연음된 예로서 음운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가)의 설명과는 무관하다. '먹는'은 'ㄱ'이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예이므로 역시 (나)의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⑤ (가) 말이 → [미치], (나) 놓는 → [논는]

→ '말이'는 'ㄷ'이 'ㄴ' 앞에서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의 예이므로 (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놓는'은 'ㅎ'이 'ㄴ' 앞에서 비음으로 바뀐 경우로 (나)의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예이다.

6. 정답 : [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형태소의 특성 파악

다음 문장에 쓰인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고 분석된 형태소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묻고 있다. 형태소를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고 자립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피었다'에는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다.
→ '피었다'는 '피-', '-었-', '-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형태소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따라서 '피었다'에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넓은'은 두 개의 의존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 '넓은'은 '넓-'과 '-은'이라는 두 개의 의존 형태소가 합쳐진 말이다.
② '밭'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 이 문장에서는 '밭'이 '에'와 결합하고 있지만, '밭'은 뒤에 아무런 조사도 오지 않아도 쓰일 수 있으며,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에'와 '이'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이다.
→ 이 문장에 쓰인 '에'와 '이'는 각각 부사격 조사와 주격 조사이다. 국어의 조사는 비록 의존 형태소이지만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
④ '예쁜'은 '예쁘-'와 '-ㄴ'의 두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 '예쁜'은 어간인 '예쁘-'와 어미 '-ㄴ'으로 분석할 수 있다.

7. 정답 : [①]

출처 : 2013>2013 고3 7월 학평(인천)>국어 A형>11번

해설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음운과 음운이 만나는 경우 인정하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음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㉓는 'ㄱ, ㄷ'이 'ㅎ'과 만나 'ㅋ, ㄷ'이 되는 축약 현상이고, ㉔는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다. 그러므로 ㉓는 'ㄱ'의 설명과 관련이 있고, ㉔는 'ㄷ'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8. 정답 : [③]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1번

해설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뒤, 각각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각각 ㉑음절의 끝소리 규칙, ㉒된소리되기(경음화), ㉓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이다. 정답은 ③으로, '따뜻하다'는 '따뜻 → [따뜨]'의 과정에서 ㉑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따뜨하다 → [따뜨타다]'의 과정에서 ㉓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은 음절 중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변동이지만, ㉒은 음절 초성의 자음 중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② ㉑에서 '앞 → [압]'의 사례에서는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었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㉓은 거센소리로 변동되는 현상이지만,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아니다. ④ ㉒은 위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㉓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⑤ ㉑이 음운의 축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㉒은 음운의 첨가에 속하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㉒은 음운의 수에는 변함이 없이 교체만 이루어진다.

9. 정답 : [②]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단어의 의미와 용례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a는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했다는 의미이므로 ㄱ에, b는 서술성을 가진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들었으므로 ㄷ에, c는 형용사로 반죽이나 밥 따위가 율기가 적어 딱딱하다는 의미이므로 ㄴ에 해당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알 / (나) 국어의 구조 / ㉒ 단어

㉑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10. 정답 : [③]

출처 : 2013 포스 독서와 문법

해설

파생어의 구조 분석과 이해

'얼리다'는 '얼-+-리-+-다'로 분석되며 '얼-'이라는 동사 어근에 사동 접

미사 '-리-'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다.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예로는 '낮추다', '높이다' 등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울렸다'는 '울--리--었--다'로 분석되어 자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 ② '말겠다'는 '말--기--겠--다'로 분석되어 타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 ④ '채우고'는 '채--이--우--고'로 분석되어 동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를 두 번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 ⑤ '잡게 했다'는 '잡--게'와 '하--였--다'로 분석되어 동사 어근에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를 붙인 예로 볼 수 있다.

11.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음절 끝소리 규칙의 쓰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웃이'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서 연음되어 [모시]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보기>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 ①의 '꽃'은 [꼇]으로 발음되며, ②의 '덜다'는 [덜따]로 발음된다. 또 ④의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되며, ⑤의 '술 위'는 [숴위] → [소위]로 발음된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해야 할 사례에 해당한다.

12. 정답 : [②]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형태소의 의미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 ③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 ④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 ⑤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13. 정답 : [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적특문A형

해설

합성어의 의미 결합 원리 파악

<보기 1>의 ㄱ~ㄴ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문제는 합성어의 의미 결합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 제시된 네 가지 의미 결합 원리를 보고, 이를 <보기 2>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ㄱ : 둘다리, ㄴ : 말풍선, ㄷ : 토끼장, ㄹ : 오리발

→ '둘다리'는 '둘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말풍선'은 '말을 써넣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것이므로 뒤에 결합된 말인 '풍선'의 의미가 변했다.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토끼장'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의미하므로 앞에 결합된 말인 '토끼'의 의미가 변한 경우인 ㄷ에 해당한다. '오리발'은 '엉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제3의 의미가 생성된 ㄹ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 말풍선, ㄴ : 둘다리, ㄷ : 토끼장, ㄹ : 오리발

→ '말풍선'은 '말을 써넣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것이므로 뒤에 결합된 말인 '풍선'의 의미가 변했다.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둘다리'는 '둘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토끼장'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의미하므로 앞에 결합된 말인 '토끼'의 의미가 변한 경우인 ㄷ에 해당한다. '오리발'은 '엉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제3의 의미가 생성된 ㄹ에 해당한다. 따라서 ㄷ에 '토끼장', ㄹ에 '오리발'을 연결한 것은 바르게 되었으나 ㄱ에 '둘다리'를, ㄴ에 '말풍선'을 연결해야 한다.

② ㄱ : 오리발, ㄴ : 말풍선, ㄷ : 둘다리, ㄹ : 토끼장

→ '오리발'은 '엉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제3의 의미가 생성된 ㄹ에 해당한다. '말풍선'은 '말을 써넣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것이므로 뒤에 결합된 말인 '풍선'의 의미가 변했다.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둘다리'는 '둘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토끼장'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의미하므로 앞에 결합된 말인 '토끼'의 의미가 변한 경우인 ㄷ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에 '말풍선'을 연결한 것은 바르게 되었으나 ㄱ에 '둘다리'를, ㄷ에 '토끼장'을, ㄹ에 '오리발'을 연결해야 한다.

③ ㄱ : 둘다리, ㄴ : 토끼장, ㄷ : 오리발, ㄹ : 말풍선

→ '둘다리'는 '둘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토끼장'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의미하므로 앞에 결합된 말인 '토끼'의 의미가 변한 경우인 ㄷ에 해당한다. '오리발'은 '엉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제3의 의미가 생성된 ㄹ에 해당한다. '말풍선'은 '말을 써넣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것이므로 뒤에 결합된 말인 '풍선'의 의미가 변했다.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에 '둘다리'를 연결한 것은 바르게 되었으나 ㄴ에 '말풍선'을, ㄷ에 '토끼장'을, ㄹ에 '오리발'을 연결해야 한다.

④ ㄱ : 오리발, ㄴ : 토끼장, ㄷ : 말풍선, ㄹ : 둘다리

→ '오리발'은 '엉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제3의 의미가 생성된 ㄹ에 해당한다. '토끼장'은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을 의미하므로 앞에 결합된 말인 '토끼'의 의미가 변한 경우인 ㄷ에 해당한다. '말풍선'은 '말을 써넣은 풍선 모양으로 생긴 그림'을 뜻하는 것이므로 뒤에 결합된 말인 '풍선'의 의미가 변했다. 따라서 ㄴ에 해당한다. '둘다리'는 '둘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결합되었으므로 ㄱ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 ㄱ에 '둘다리'를, ㄴ에 '말풍선'을, ㄷ에 '토끼장'을, ㄹ에 '오리발'을 연결해야 한다.

14. 정답 : [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단어의 구조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1] ㅁ에 쓰인 접사 파악하기

ㅁ의 문장에 쓰인 '높이다'의 '-이-'는 어근 '높' 뒤에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확인 2] 접사의 기능 파악하기

'높이다'의 '-이-'는 어근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할 뿐만 아니라 '거실의 온도가 높다.' → '동생이 거실의 온도를 높였다.'처럼 문장의 구조까지 바꾼다. 또한 '높다'라는 형용사를 동사인 '높이다'로 바꾸므로 품사는 바꾸지 못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접사 '강-'의 기능 파악하기

ㄱ의 '강추위'에는 '강-'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추위'라는 단어에 '매우 센'이라는 의미를 더해 줌으로써 본래의 단어에 '추위'의 정도를 강화시켜 주었다.

② [확인] 접사 '-개'의 기능 파악하기

ㄴ의 '덮개'는 '덮다'라는 동사의 어근 '덮'에 '-개'라는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이다. 따라서 접미사 '-개'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었으므로 품사를 달라지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확인] 접사 '-쟁이'의 기능 파악하기

ㄷ의 '겉쟁이'에 붙은 '-쟁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하지만 '겉'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쟁이'가 붙어 파생된 '겉쟁이'도 여전히 명사이다. 따라서 '겉쟁이'에 붙은 '-쟁이'는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

④ [확인] 접사 '-히-'의 기능 파악하기

ㄹ의 '읽히다'에 붙은 접미사 '-히-'는 어근 '읽'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해 주고 있다. 또 '동생이 책을 읽었다.' → '어머니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처럼 문장의 구조까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15. 정답: [㉔]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음운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므로, 초성, 중성, 종성 중의 어디에 위치하든 그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꿈에 따라 그 음운이 포함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발'의 초성을 'ㄷ'이나 'ㅅ'으로 바꾸거나, '발'의 중성을 'ㅇ'나 'ㄱ'로 바꾸거나, '발'의 종성을 'ㅂ'이나 'ㅇ'으로 바꾸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비분절 음운인 음장(音長) 역시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을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음운 중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ㄴ)의 비분절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없다. 이는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하는 것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되는데,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음운의 출현이 위치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ㄱ), (ㄴ)의 활동과도 관련이 없다.
- ⑤ 음운은 음운 교체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ㄱ), (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

16. 정답: [㉓]

출처: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꿈'은 '꾸-'에 명사 파생 접사 '-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고, '비움'은 '비우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형태이다. '탐구'에서 '꿈'은 관형어 '놀라운'의 수식을 받지만 부사어 '놀랄게도'의 수식은 받지 않았다. 반면, '비움'은 부사어 '철저히'의 수식을 받았다. 따라서 '비움'은 응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한다. 따라서 '비움'과 달리 '꿈'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꿈'이 체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꿈'의 경우 '-ㅁ'이 파생 접사이고, '비움'의 경우 '-ㅁ'이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파생 접사 '-ㅁ'과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어간에 '-ㅁ'이 결합했다는 점만으로 '꿈'과 '비움'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② '꿈'은 '꾸다'와, '비움'은 '비우다'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결론의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 ③ '꿈'이 '꾸다'와 호응하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관련이 없다.
- ④ '비움'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비움'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명사도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정답: [㉔]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음운의 변동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날날이'에서 첫 글자인 '날'이 '[날]'으로 발음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또한 '[날: 날이]'가 '[날: 나치]'가 된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날: 나치]'가 '[날: 나치]'로 된 것은 'ㄷ'이 'ㄴ'과 만나 'ㄴ'으로 동화된 것이므로 비음화에 해당한다.

18. 정답: [㉑]

출처: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3번

해설

13. [출제의도] 파생어의 구조를 이해한다.

'싸움꾼'은 어근 '싸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싸움'이 되고, 여기에 다시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된 말로, [(어근+접미사)+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오답풀이] ㉒ '군것질'은 [(접두사(군-)+어근(것))+접미사(-질)]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㉓ '놀이터'는 [(어근(놀-)+접미사(-이))+어근(터)]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㉔ '병마개'는 [어근(병)+어근(막-)+접미사(-애)]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㉕ '미달이'는 [(어근(미-)+어근(달-))+접미사(-이)]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19. 정답: [㉓]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음운 변동의 사례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은 '탈락'이다. ⑤의 경우 '-와'와 'ㄷ'가 만나서 'ㅌ'로 된 것은 한 음운('-')이 없어진 것이므로 탈락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의 'ㅋ'이 된 것이다.
- ②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의 'ㅌ'이 된 것이다.
- ③ '-ㄱ'과 'ㄷ'이 만나 이중 모음인 'ㄱ'이 된 것이다.
- ④ 'ㅣ'와 'ㄷ'이 만나 이중 모음인 'ㅌ'이 된 것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① 음운

㉔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20.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과 ②은 어간이 '-로' 끝나는 용언이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 '-아'가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잠가'의 경우 '잠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아'가 탈락한 형태이고, '담기'의 경우 '담그-'에 '-아'가 결합하면서 '-아'가 탈락한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④로, '치르다'의 어간 '치르-'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아'가 탈락하여 '치러'와 같은 형태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간의 끝 'ㄱ'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어간의 끝 'ㅂ'이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어간의 끝 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21. 정답 : [①]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음운 변동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음운 변동은 음운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있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 등이 있다. 그런데 '봄이 → [보미]'는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오는 연음으로 음운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았다.
- ③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았다.
- ④ 뒤의 'ㅣ'의 영향을 받았다.
- ⑤ 앞의 'ㅂ'의 영향을 받았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① 음운

㉔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22.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단어의 성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쓰다, 꺾다, 입다, 신다'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유의어들이다. 하지만 이들 유의어는 모두 착용한다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 (나) 국어의 구조 / ⑤ 의미

㉔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23.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단어의 분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 '뚫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불입금, 이자, 갚은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의미이고, 뒤의 단어는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라는 의미이다. 두 단어의 의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ㄹ. '갈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뒤의 단어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거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단어의 품사는 동사이면서, 각각 '갈고, 갈며, 갈지' 등으로 동일하게 규칙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B]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뜨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행동 따위가 느리고 더디다.'를 의미하고, 뒤의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단어는 품사가 형용사인 반면, 뒤의 단어는 품사가 동사이다.

ㄷ. '묻다'의 경우 앞의 단어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뒤의 단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두 단어의 의미는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품사는 모두 동사에 속하지만, 활용을 할 때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앞의 '묻다'는 '묻고, 묻으며, 묻으니'로 규칙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뒤의 '묻다'는 '묻고, 물으며, 물으니'로 활용의 형태가 바뀐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㉔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
다.

24. 정답 : [⑥]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합성어의 음운 현상 파악

다음은 합성어에 대한 수업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 문제는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볼 때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관계가 경음화의 적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경음화의 적용이 달라진다.
→ '물고기'와 '불고기', '산바람'과 '비바람', '겨울비'와 '이슬비'를 비교하면 후행 요소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경음화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물고기'와 '산바람'처럼 장소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겨울비'와 같이 시간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 경음화의 적용에는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의 의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합성어의 후행 요소가 같으면 동일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다.
→ 후행 요소가 같은데도 경음화의 적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 ② 합성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의 의미를 합친 것과 동일하다.
→ '물고기'의 의미가 '물'과 '고기'의 의미를 합친 것과는 차이 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합성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 ③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항상 일정하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어근들 사이의 의미 관계는 합성어에 따라 차이가 난다.
- ④ 합성어의 구성 요소에는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포함된다.
→ 제시된 자료에서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성어는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지므로 그 구성 요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

25. 정답 : [④]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단어의 분류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확인]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 변화

문다⁰³은 '물고, 문게'에서는 활용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물어, 물으니'에서는 활용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문다⁰¹은 '물고, 문게, 물어, 물으니'처럼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의미적 연관성

문다⁰¹에서 (1)과 (2)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의어'라 할 수 있다.

②[확인] 물어 다녔다

'나는 그들 틈에 물어 다녔다.'라는 문장에서 '물다'는 '함께 팔리거나 섞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문다⁰¹(2)

의 용례에 추가할 수 있다.

③[확인] 유의 관계에 있는 말

문다⁰³(2)는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이므로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추궁(追窮)하다'와 유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확인] 필수적 부사어 요구

문다⁰¹은 '...에', 문다⁰³은 '...에/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문장에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정답 : [②]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넘다'의 [넘 :]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따라서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서'가 결합되는 '넘어서'의 [넘]은 짧게 발음해야 하며,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렇지만 '넘치다'는 '넘다'의 피동사나 사동사가 아니다. '넘치다'의 '-치-'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넘치다'는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밀려나다.'의 뜻을 지닌다. 실제로 '넘치다'의 [넘 :]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넘치다'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다'의 [강 :]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으니'가 결합한 '강으니'의 [강]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강으니'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강기다'는 '강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강기다'의 [강]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강기다'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말다'의 [말 :]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가 결합한 '말어'의 [말]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말어'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밀리다'는 '말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밀리다'의 [말]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밀리다'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밧다'의 [밧 :]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아'가 결합한 '밧아'의 [밧]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밧아'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밧히다'는 '밧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사이기 때문에 '밧히다'의 [밧]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밧히다'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안다'의 [안 :]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아'가 결합한 '안아'의 [안]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안아'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안기다'는 '안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은 사동사이기 때문에 '안기다'의 [안]은 짧게 발음한다. 따라서 '안기다'는 ②의 사례로 적절하다.

27. 정답 : [③]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2번

해설

[출제의도] 자음동화와 ㄴ첨가 현상 이해하기

㉠ '막힐'은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 소리가 첨가되는데, [막닐]이 아닌 [망닐]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앞말의 받침인 'ㄱ'이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ㄴ'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비음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ㅇ'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는 앞말인 '코'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날'이 'ㄴ'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㉕는 앞말인 '색'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여'로 시작되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㉖는 앞말 '물'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 소리가 첨가되는데, [물낙]이 아닌 [물락]으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ㄴ'이 앞말의 받침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유음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⑤ ㉗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ㅁ'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된 경우인데, 사이시옷을 추가하여 '잇몸'이라고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8. 정답 : [㉓]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올바른 발음 평가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집 사항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발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음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발음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ㅅ'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술]' 대신 '[바쑈]'로 발음한다.
→ '발음'의 표준 발음은 '[바들]'이며 단순히 연음만 하면 된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ㄹ' 뒤에 'ㅣ'나 반모음 'y'가 올 때인데 '발음'은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를 하면 잘못된 발음이 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ㅏ'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봐:]'로 발음한다.
→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ㅏ'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ㅁ'을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땨]'로 발음한다.
→ '땨'는 '[다땨]'와 같이 연음시키는 것이 맞다.
- ④ 종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정:]' 대신 '[정:]'로 발음한다.
→ 국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 ⑤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 긴소리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변한다.

29. 정답 : [㉒]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단어의 구조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② [확인] 관형사와 접두사에 의한 품사 변화 여부

<보기>의 ㉔으로 보아 '벼', '수수', '사랑', '음식', '일'과 같은 명사들은 관형사 '모든'의 수식을 받아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지만, 품사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㉕의 '헛되다'에서는 접두사 '헛'이 붙어 원래의 품사가 동사인 '되다'가 '헛되다'라는 형용사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관형사와 접두사의 기능

㉔~㉕의 예를 통해 관형사와 접두사의 기본 기능이 각각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것'과 '뒤에 오는 말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확인] 관형사 구성과 접두사 구성의 비교

㉔은 [관형사+체언] 구성의 예로, 두 구성 요소 사이에 다른 말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접두사+어근]의 구성인 ㉕은 이것이 불가능함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확인] 관형사와 접두사의 제약

㉕의 '애-'와 같이 접두사는 뒤에 올 수 있는 어근이 한정되어 있으나, ㉔의 '모든'과 같은 관형사는 거의 대부분의 체언을 꾸밀 수 있다.

⑥ [확인] 관형사와 접두사의 쓰임 비교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로, ㉔과 같이 관형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표현은 비문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접두사는 ㉕의 '뒤쑈다, 헛되다'에서와 같이 용언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30. 정답 : [㉓]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음운 변동의 유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내복약' → [내: 봉낙]의 변동 과정은 비음화와 'ㄴ' 첨가를 포함한다. '내복약' → [내: 복낙]에서는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나고, '내복약' → [내: 봉낙]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직행' → [지쟁]에서는 거센소리되기(ㄱ+ㅈ→ㅋ)가 나타나고, '지쟁열차' → [지쟁널차]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 ② '훈이불' → [훈이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훈이불' → [훈니불]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나며, '훈이불' → [훈니불]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④ '콩엿' → [콩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고, '콩열' → [콩널]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난다.
- ⑤ '색년필' → [색년필]에서는 'ㄴ' 첨가가 나타나고, '색년필' → [생년필]에서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① 음운

㉔ 국어의 음운 체계, 음운 규칙과 변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31. 정답 : [㉒]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이중 모음 발음의 적절성 평가

(가)를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지식의'를 '지혜의'로 바꾸면 '의'의 발음도 달라진다.
 → '지식의'와 '지혜의'에서 '의'는 모두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 '의' 앞
 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조사 '의'의 발음에는 아무
 런 차이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식의'는 '[지시계]'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 ② '지식의'는 '[지시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지식의'를 '[지시기]'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다.
 → 조사 '의'는 '[]'로 발음할 수 없다.
- ⑤ '지식의'에서 '의'의 발음은 '법칙의 발견'에서 '의'의 발음과 동일하다.
 → '지식의'와 '법칙의'의 '의'는 모두 조사이므로 발음이 동일하다.

32. 정답 : [⑥]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단어의 형성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싸움쟁이'는 동사 어간 '싸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싸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쟁이'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귀'는 동사 어간 '자-'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이 더해져 '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명사인 '귀'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② '육심꾸러기'는 명사 '육심'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꾸러기'가 더해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③ '물음표'는 동사 어간 '묻-'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더해져 '물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표지'를 나타내는 명사 '표(標)'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④ '볶음밥'은 동사 어간 '볶-'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더해져 '볶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난알이 풀어지지 않고 물기가 잦아들게 끓여 익힌 음식'을 나타내는 명사 '밥'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㉞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33. 정답 : [①]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의 '오'는 한글 맞춤법 제17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이다. 즉 ㉞은 '아니-(어간) + -지(종결 어미)'에 조사 '오'가 덧붙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오'는 종결 어미가 될 수 없으며, 종결 어미는 '-오'이다.

㉞은 '아니-(어간) + -오(연결 어미)'의 구조이다. 따라서 ㉞의 진술은 잘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㉞은 '아니-(어간) + -지(종결 어미) + 오(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의 구조이다.
- ③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3]을 참조하면 ㉞의 '아니오'는 '아니-(어간) + -오(연결 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를 통해 ㉞은 '아니-(어간) + -오(종결 어미)'로 분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㉞과 ㉞의 어간은 모두 '아니-'이다.
- ④ 표준 발음법 제22항의 [붙임]에 따르면 '아니오'는 [아니오]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⑤ ㉞은 '아니-(어간) + -오(종결 어미)'인데, 한글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2]를 통해 이때의 '-오'가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칙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4. 정답 : [③]

출처 : 2012 수능완성 언어영역

해설

형태소의 개념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 1>에 따르면, ㄴ에서 자립 형태소는 '하늘, 창', 실질 형태소는 '하늘, 창, 푸르-'이다. 따라서 그 둘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 1>에서 제시한 형태소의 개념에 따라 ㄴ을 분석하면 '나, 는, 오늘, 도, 책, 을, 읽-, -었-, -다'가 된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② ㄴ에서 '나, 오늘, 책'은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어떤 대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④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혼자 쓰일 수는 없고 반드시 어미가 결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읽-'과 '푸르-'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⑤ ㄴ의 '는, 도, 을'과 ㄴ의 '이'는 체언의 뒤에 붙어서만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며, 앞말과 다른 말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35.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합성어의 유형 및 종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물뿔을 가리지 않고 힘조했다'의 '물뿔'은 결합된 어근 '물'과 '뿔'의 의미가 모두 상실된 채 어려움이나 위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용된 융합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눈발'은 명사 간의 결합에 의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르면 '뛰놀다'는 '뛰어놀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뛰놀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둘다리'의 '둘'은 '다리'를 꾸며 주는 말이므로 '다리'에 종속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둘다리'는 종속 합성어이다.
- ⑤ '말아먹다'는 '말다'와 '먹다'가 지닌 본래의 뜻을 상실한 채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융합 합성어이다.

36. 정답 : [㉔]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음운의 변동 현상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확인] 발음
'밭을'에서 'ㅂ'은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뀐다. 이는 '비음화'만 적용된 것으로, '받침 규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뉘는다
'뉘는다'는 먼저 '받침 규칙'의 적용을 받아 '[뉘는다]'로 바뀐 후,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당는다]'로 발음된다.
②[확인] 알니
'알니'는 먼저 '받침 규칙'의 적용을 받아 '[알니]'로 바뀐 후,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알니]'로 발음된다.
③[확인] 발농사
'발농사'는 먼저 '받침 규칙'의 적용을 받아 '[발농사]'로 바뀐 후,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반농사]'로 발음된다.
④[확인] 웃만
'웃만'은 먼저 '받침 규칙'의 적용을 받아 '[웃만]'으로 바뀐 후, '비음화'의 적용을 받아 '[온만]'으로 발음된다.

37.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형태소의 개념과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나'는 '전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이므로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는 주격 조사로 명사나 대명사, 수사 등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② '자라-'는 용언의 어간으로 어미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③ '-는'은 관형사형 어미로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④ '새-'는 접두사로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

38.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치르-+-어'는 '치러'로 모음 '-어'가 탈락되면서 'ㄹ'이 '-어'와 결합되어 '러'가 된 것이다. 용언의 어간에서 '-어'가 탈락하는 것은 규칙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치러'는 규칙 활용이다. '러' 불규칙은 모음 '-어'가 탈락되지 않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긋-+-어'는 '긋어'로 변화하는데 어간의 'ㅅ'이 탈락된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ㅅ'이 탈락하는 현상은 'ㅅ' 불규칙이므로 '긋어'는 음례로 적절하다.
② '깨달-+-아'는 '깨달아'로 변화한다. 이때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는 현상은 'ㄷ' 불규칙이므로 '깨달아'는 음례로 적절하다.

③ '아름답-+-어'는 '아름다워'로 변화한다. '아름다워'는 어간의 받침 'ㅂ'이 어미 '-어' 앞에서 '우'로 바뀐 후, '우'와 '-어'가 결합하여 '워'가 되어 '아름다워'로 적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워'는 'ㅂ' 불규칙이다.
④ '찌르-+-어'는 '찌러'로 변화한다. '찌러'는 어간의 'ㄹ'에서 '-어'가 탈락되고 'ㄹ'이 덧생겨서 '찌ㄹㄹ-+-어'로 변화한 후 결합하여서 '찌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찌러'는 'ㄹ' 불규칙이다.

39.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단어의 구조 추론

다음 (가), (나)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 문제는 (가)와 (나)에 제시된 단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묻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복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성격은 상이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가)는 어근들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나)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가)의 '어깨동무, 피망, 오르내리다'는 각각 '어깨-동무, 피-망, 오르-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가 어근에 속하므로 합성어이다. 반면 (나)의 '구경꾼, 새파랗다, 짓누르다'는 '-꾼, 새-, 짓-'이라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파생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단일어이지만, (나)는 복합어이다.
→ (가)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일어라고 할 수 없다.
② (가)는 접두사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가)에는 접두사가 결합된 말이 전혀 없으며, (나)에는 접두사가 결합된 말(새파랗다, 짓누르다)도 있다.
④ (가)는 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어이고, (나)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가)에 제시된 단어 중 접사를 포함한 것은 전혀 없으며, (나)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⑤ (가)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결합된 파생어이고, (나)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가)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이며, (나)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40. 정답 : [㉔]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어의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비음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음화로 인해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방법이 같게 되고,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물[궁물]'의 경우 파열음인 'ㄱ'이 비음인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변하는 데서 조음 방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ㅇ'은 여전히 'ㄱ'과 마찬가지로 여린입천장과 혀 뒤에서 나는 소리가기 때문에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비음화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조음 방법이 같게 된다.
③ 비음화의 결과 조음 위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④ 소리의 세기가 같게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㉔ 소리의 세기가 같게 바뀐다고 부기는 어렵다. 또 비음화의 결과 울림소리가 아니었던 자음은 울림소리가 되므로 울림소리 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41. 정답 : [㉔]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깨끗하다'가 [깨꺄하다]로 변동되는 것은 음절 끝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인데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 오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㉔의 '교체'에 해당한다. 또한 [깨꺄하다]가 [깨꺄타다]로 발음되는 것은 인접한 두 음운 'ㄷ'과 'ㅎ'이 합쳐져 제3의 음운인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㉔의 '축약' 현상에 따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의 '탈락'은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어 'ㅎ'이 없어지거나 '크어'가 [커]로 발음되어 'ㄷ'가 없어지는 것처럼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현상을 가리킨다. ㉒의 '첨가'는 '논일'이 [논닐]로 발음되어 'ㄴ'이 첨가되는 것처럼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현상을 가리킨다.

42. 정답 : [㉑]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음운 현상 이해,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1] 음운 변동 현상의 실제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기법과 발음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음운 변동 현상의 갈래

그 음운 자체에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대표적이다. ㉔의 '암탕[암탁]'이나 ㉕의 '꽃[꼇]'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경우는 'ㄴ'음 첨가 현상인 ㉖의 '담요[담:뇨]'와 비음화 현상인 ㉗의 '먹는[멍는]', 구개음화 현상인 ㉘의 '글이[구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43.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단어 형성의 적절성 추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발견되는 단어의 예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단어 형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의 구별, 품사의 변화 등을 이해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헛웃음

→ '헛웃음'은 '웃-'에 '-음'이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가 등사에서 명사로 바뀐 것에 다시 접두사 '헛-'이 결합되었다. 따라서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예가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풋사랑

→ '풋사랑'은 접두사 '풋-'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어의 품사는 명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접미사가 결합되지도 않았다.

② 아침밥

→ '아침밥'은 '아침'과 '밥'이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③ 군소리

→ '군소리'는 접두사 '군-'이 결합된 파생어로서 단어의 품사는 명사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한 접미사가 결합되지도 않았다.

⑤ 산울림

→ '산울림'에서 '울림'은 '울리-'에 접미사 '-ㅁ'이 결합되어 품사가 바뀌었지만 '산'은 어근이어서 접두사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4. 정답 : [㉑]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분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스며들다'는 '스미다'의 어간인 '스미-'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들다'라는 용언이 결합한 것이다. 이는 용언의 연결형 다음에 용언이 결합한 것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척척'은 부사이고, '박사'는 명사이다. '척척박사'는 '부사+명사' 구성을 보이는데, '척척'이라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꾸미므로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② '덜-'은 '덜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밥'은 명사이므로, '덜밥'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③ '점-'은 '점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칼'은 명사이므로, '점칼'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④ '검-'은 '검다'라는 용언의 어간이고, '볶다'는 용언이므로, '검볶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 이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㉔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단어의 구조, 단어 형성법 등을 이해하고, 단어 형성법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

45.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음운과 표기의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소리대로 적는 것, 즉 표음적 표기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글을 쓰는 사람에게 편리한 표기 방식이다. 또 어법대로 적는 것, 즉 표의적 표기는 글을 읽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글이'와 '칼을'과 같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은 표의적 표

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㉓는 말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 편리한 사람을 의미한다. '글을 쓰는 사람'의 경우, 소리 나는 대로 글을 쓰면, 일일이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㉓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㉔에는 어법에 맞도록 표기할 때 유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는 것은 곧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의적 표기 방식은 곧 읽는 사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㉔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글이'와 '칼을'은 어법대로 적은 예로서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표의적 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정답 : [㉓]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비분절 음운 개념의 이해 및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거짓말'은 '거짓[거 : 짐]'과 '말[말 :]'이 결합된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장음이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거짓말'에서 장음은 '거 : 짐'에만 남아 있고 '[말 :]'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자음과 모음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즉 하나씩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는 소리이므로, 비분절 음운이 아니라 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 ㉒ <보기>에서 장단은 모음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눈[눈]'에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은 종성의 'ㄴ'이 아니라 종성의 'ㄱ'임을 알 수 있다.
- ㉓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눈이 안 보여"라는 말을 할 때 억양과 장단이 동시에 사용될 수 없는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눈[眼]이 안 보여'인지 "눈[눈]이 안 보여"인지에 따라 '눈'이란 단어의 발음에서 장단이 달라지고, 문장의 끝을 울리는지 내리는지에 따라 발화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㉔ "흔차 살아"를, 끝을 울리는 억양으로 말하면 의문문이 된다. 그러므로 명령이 아니라 의문이나 확인의 의미에 가깝다.

47. 정답 : [㉔]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1번

해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음운의 변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㉔로, '급행 열차'가 [그평널차]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㉓)'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이 [널]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가랑잎'이 [가랑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ㄴ'이 '첨가(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

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㉒ '값지다'가 [갑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는 과정은, 'ㄱ, ㄷ, ㅂ'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㉓ '술하다'가 [수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술'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㉑)' 현상에 해당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㉓)'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㉔ '서른여덟'이 [서른녀덜]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ㄴ'이 '첨가(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덜'이 [덜]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8. 정답 : [㉒]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1번

해설

11. [출제의도]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이해한다.

'ㅐ'는 전설평순저모음, 'ㅑ'는 전설평순중모음으로 둘은 '혀의 높이(입의 개폐)'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저모음은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것으로 '개모음(開母音)'이라고도 하며, 중모음은 그보다 혀의 위치가 중간인 것으로 '반개모음(半開母音)'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49. 정답 : [㉒]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잊히다'를 [이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ㅂ, ㄷ, ㅈ, ㅊ'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ㅍ, ㅌ, ㅍ, ㅊ'으로, 두 음운을 합쳐서 발음하는 음운의 축약과 관련된다. 따라서 구개음화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활용하여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㉑ '붙인다'의 표준 발음은 [부천다]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 ㉓ '같이'는 [가티]가 아닌 [가치]로 발음해야 하며, 이는 받침 'ㅌ'이 접미사 '-이-'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㉔ 앞의 '발이랑'은 [반니랑]으로, 뒤의 '발이랑'은 [바치랑]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앞의 '발이랑'은 '발+이랑(명사, 실질 형태소)'의 구조로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닌 반면, 뒤의 '발이랑'은 '발+이랑(조사)'의 구조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 ㉕ '발들'은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음하여 [바들]로 발음하지만, '발이'는 구개음화의 조건이기 때문에 [바치]로 발음해야 한다.

50. 정답 : [㉓]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경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음운 현상 이해,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확인] 손짓

'손짓'은 올림소리 'ㄴ'과 안올림소리 'ㅈ'의 결합으로, '명사(손)'와 '명사(짓)'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손짓'은 <보기>에 제시된 '된소리되기'와 관련이 없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손짚]으로 발음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꽃밭

'꽃밭'의 '꽃'과 '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각각 [꼐]과 [밭]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꼐]+[밭]에서 안올림소리 'ㄷ'과 안올림소리 'ㅂ'이 결합하여, [꼐뵵]으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①을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②[확인] 삼지

'삼지'의 '삼'은 동사의 어간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삼]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삼]+[지]는 어간의 끝소리가 'ㅁ'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ㅈ'이므로, [삼찌]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②를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③[확인] 안고

'안고'의 '안'은 동사의 어간이다. [안]+[고]는 어간의 끝소리가 'ㄴ'이고, 어미의 첫소리가 'ㄱ'이므로, [안꼬]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③을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④[확인] 국밥

'국밥'의 '국'과 '밥'은 명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각각 [국]+[밥]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국]+[밥]에서 안올림소리 'ㄱ'과 안올림소리 'ㅂ'이 결합하여 [국뵵]으로 발음된다. 이는 <보기>의 ④를 만족시키므로 '된소리되기'라 할 수 있다.

51.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품사 통용의 개념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와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에서 '푸르러'와 '푸른'의 품사는 모두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나도 그 사람만큼 될 수 있다.'에서 '만큼'은 조사이다.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만다.'에서 '열'은 수사이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에서 '열'은 관형사이다.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에서 '밝다'는 형용사이고, '별째 날이 밝는다.'에서 '밝는다'는 동사이다.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에서 '다섯'은 수사이고,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즙썰이 두 가마니였다.'에서 '다섯'은 관형사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얹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㉞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52. 정답 : [③]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관형사 '다른'과 형용사 '다르다'는 문장 속에서 관형어 '다른'으로 쓰일 때 형태가 같아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형사 '다른'은 '이외의'의 뜻을 지니며 비슷한 뜻의 관형사인 '딴'과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과 ㉡에 쓰인 '다른'이다. 또한 형용사 '다르다'는 문장 속에서 '달라, 다르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 ㉢에서는 각각 '그는 우리와 달라(다르니),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다르니), 쌍둥이들도 각자 달라(다르니)'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다르다'는 형용사이다. 또한 ㉠, ㉡, ㉢에 쓰인 '다르다'는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결론으로, 형용사 '다르다'는 조사 '과(와)'와 연결되거나(㉠, ㉡),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는(㉢) 문형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53.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관형사절의 종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문장이 '그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형태이다.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사실'이라는 체언이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아니라, 안긴문장과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⑤는 동격 관형절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는 '꽃이 향기가 좋다.'라는 문장이 '꽃이 가득하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꽃'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①은 관계 관형절이다.

② '내가 읽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는 '내가 책을 읽을 것이다.'라는 문장이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책'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②는 관계 관형절이다.

③ '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내가 그해에 태어났다.'라는 문장이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그해'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므로 ③은 관계 관형절이다.

④ '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다.'라는 문장이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 따라서 '학교'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④는 관계 관형절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얹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장의 종류를 이해한다.

54. 정답 : [②]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인칭 대명사의 종류 파악

문제은행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누구'는 부정칭 대명사가 아니라 미지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보기 2>의 상황에서 ㉠은 둘 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하나가 소나무를 뿌리째 뽑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물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신'은 보통 2인칭 대명사로 쓰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 문장의 주어로 쓰인 '아버님'을 다시 받는 재귀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 ③ '저'는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
- ④ '그'는 주어인 '동생'을 받는 3인칭 대명사이다.
- ⑤ '자기'는 같은 문장에서 앞서 나온 주어인 '동생'을 다시 받는 재귀 대명사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1

(1) 국어와 알

(나) 국어의 구조

② 단어

㉠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55.

정답 : [④]

출처 : 2014>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2번

해설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구분한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의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자라다'의 뜻으로 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56.

정답 : [㉠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파악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이 문제는 품사의 개념과 품사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할 때, 각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먹다, 예쁘다, 이다'와 같은 단어들은 ㉡형태가 변하는 예이다.
- 단어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이에 해당하고, 가변어는 형태가 바뀌는 단어로 '용언'이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은 아니지만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해당된다.

-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이나 구실)을 기준으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체언은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눌 수 있다.
-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는 것은 의미에 따른 것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며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7.

정답 : [㉢]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문장 성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서술어 '주었니'의 목적어는 '돈만'으로, ㉡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의 목적어 '돈만'은 특정한 의미를 더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목적격 조사 '을' 대신 보조사 '만'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각 문장은 서술어에 의해 문장이 성립하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결정되고 있다. 각각의 서술어로 인해 ㉠은 주어, ㉡은 주어와 목적어, ㉢은 주어와 보어, ㉣은 주어와 목적어, ㉤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 되고 있다.
- ② ㉠의 '무척'은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이고, ㉡의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④ ㉡에서 독립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는 독립어인 '김 대리'가 아니라 '회사'이다. 이와 달리 ㉢에서 '가졌는가'의 의미상 주어는 독립어인 '젊은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관형어 '높은'이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다소 변할 뿐, 문장 자체의 성립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 관형어 '먹을'은 생략될 경우,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58.

정답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독립어의 특성 파악

㉠과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독립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묻고 있다. 제시된 말을 보고 그것이 독립어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먼저 독립어의 개념과 문법적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 '천수아'와 '아니'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독립하여 쓰이는 독립어에 해당된다. ⑤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탄사는 모두 이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로 쓰인다.
- ②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생략해도 전체 문장이 비문이 되지 않는다.
- ③ 글에서 이 문장 성분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다.
- 말에서 독립어 뒤에는 약간의 '심(깊어 말하기)'이 나타난다. 글에서 독립어 뒤에는 흔히 반점(",")을 찍는데, 이는 독립어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 ④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 독립어는 '영숙아, 철수야, 하늘이여'와 같이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59. 정답 : [④]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관형어와 부사어의 구분

㉠-㉢ 중,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이 문제는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둘 다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이지만,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 '굉장히'는 용언인 '든다고'를 꾸며 주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새'는 체언인 '구두'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새'의 품사는 관형사이며, 관형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된다.
- ② ㉢ → '산'은 체언인 '구두'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산'은 동사 '사다'의 여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③ ㉣ → '멋진'은 체언인 '구두'를 꾸미는 관형어이다. '멋진'은 형용사 '멋지다'의 여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⑤ ㉤ → '희철이의'는 체언인 '결혼식'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이처럼 관형어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06

60.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구분

정답이 정답인 이유
'먹이'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높이'의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먹고'의 '-고'와 '높고'의 '-고'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단지 활용형을 만들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먹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주고, '높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품사를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꾸어 주지만, 어미는 품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지 못한다.
② 어미들은 그 의미가 일정하지만 파생 접미사들은 결합되는 어근에 따라 그 의미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높게, 길게, 짧게, 작게'

에서 어미 '-게'는 그 의미가 모두 같지만, '털같이, 재떨이, 구두땀이'의 파생 접미사 '-이'는 그 의미가 각각 다 다르다. '털같이'의 '-이'는 '~하는 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재떨이'의 '-이'는 '~하는 도구'를 나타내며, '구두땀이'의 '-이'는 '~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③ 파생 접미사와 결합된 말은 새로운 단어로써 사전에 등재되지만 어미와 결합된 말은 단지 활용형이기에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
④ '높게, 길게, 짧게, 작게'와 '높이, 깊이, *작이, *작이'에서 나타나듯이 어미는 그 여간과의 결합이 자유로운 반면, 파생 접미사는 그 결합이 제약되어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 (1) 국어와 말 / (나) 국어의 구조 / ③ 문장
- ㉠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 문법 II
-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61.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보조사의 쓰임 분석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의 밑줄 친 보조사 '이나'의 의미에 주목하여 문장을 해석할 때, ㄷ은 '마치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더해 준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로는 '그것이나 가져라.'에 나타난 '-이나'를 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의 보조사 '은'은 '대조'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② ㄴ의 보조사 '만'은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④ ㄹ의 보조사 '밖에'는 '더 없음'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⑤ ㄹ의 보조사 '조차'는 '앞말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의 것이 더해짐'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62.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국어의 단어들은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로 분류된다. 이 중 활용을 하지 않으면서 주로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제시된 답지 중 관형사는 ④의 '갖은'이다. '갖은'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노력'과 같은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빨리'는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왔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빨리'의 품사는 '부사'이다.
② '출찍'은 활용을 하지 않으며 다른 말을 꾸미기는 하지만 체언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킷다'와 같은 용언을 꾸민다. '출찍'의 품사는 '부사'이다.
③ '좋은'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곳'을 꾸미는 하지만 품사로는 '형용사'이다. '좋고, 좋으니, 좋아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⑤ '예쁜'은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로 이 문장에서는 체언 '자식'을 꾸미

문제은행

기는 하지만 종사로는 '형용사'이다. '예쁘고, 예쁘니까, 예뻐서' 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63.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정답찾기]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를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언어생활의 양상> 유형과 관련하여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생성된 새말의 적절성을 국어 단어 형성법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

담화 분석 활동	제시된 지문은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과정을 소개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국어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말의 기능,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의 사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 등을 지도하고 있다.
----------	--

유형 해결 전략	우선 새말에 쓰이는 파생 접사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한다. 다음으로 파생 접사를 이용하여 만든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하다.'의 의미로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말이 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	---

64.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의 구분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명사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의존 명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의존 명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밥 먹을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다.
→ '때'는 관형어 '밥 먹을'의 꾸밈을 받고 있지만, '때를 기다리다.'와 같이 관형어의 꾸밈 없이도 홀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때'는 자립 명사에 해당한다.

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주도에 가 본 지가 오래되었다.
→ '지'를 꾸미는 관형어 '제주도에 가 본'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지'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③ 우리는 먹을 데를 찾아서 이동했다.
→ '데'를 꾸미는 관형어 '먹을'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데'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④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 '바'를 꾸미는 관형어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바'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⑤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하고 싶다.
→ '이'를 꾸미는 관형어 '사랑하는'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이'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이다.

65. 정답 : [㉓]
출처 : 2013>2013 고3 3월 학평(서울)>국어 A형>12번

해설

12. [출제의도] 품사 분류 기준을 이해한다.
품사 분류 기준 중 '형태'는 형태의 변화 여부를 말하므로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기능'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므로 '호수', '강', '누구', '깊이'는 주어가 될 수 있는 체언이며, '깊다'와 '모르다'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가, 의, 는, 도'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이다.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로서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된다.

66. 정답 : [㉑]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품사와 문장 성분의 분류 기준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첫, 좋았다'의 품사와 문장 성분
'첫'은 '맨 처음의'이라는 의미를 지닌 '관형사'이며, 문장 성분은 뒤의 '시험'을 수식해 주므로 '관형어'이다. '좋았다'는 기본형이 '좋다'로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67. 정답 : [㉔]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관형어를 만드는 방법의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됨.
(라) - '웬'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이고, '모름'은 용언의 어

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ㄹ'이 붙어서 관형어가 된 말이다. 따라서 'ㄱ'과 'ㄷ'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① [확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됨. 체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뒤의 체언을 수식함.
- (가) - '옛':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고향': 체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② [확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함.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함.
- (나) - '영수의':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경우, '잘못된':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된 경우
- ③ [확인]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됨.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함.
- (다) - '새':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예쁜':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된 경우
- ⑤ [확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함. 체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뒤의 체언을 수식함.
- (마) - '소년의':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경우, '시골': 체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68. 정답: [⑤]
출처: 2013 인터넷수능 화자특문A형

해설

수사와 관형사(수 관형사)의 구분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 문제는 수사와 관형사(수 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수사와 수 관형사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수 관형사의 문법적 특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 풀이 방법]

- ⑤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세'는 '면'을 꾸며 주는 수 관형사이다. 수사는 조사와 결합하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명사를 수식한다.
- [예시 답안]
- ① 학생 서넛이 찾아왔어요.
- '서넛'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
- ② 우리 집 식구는 다섯이다.
- '다섯'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있다.
- ③ 아주머니, 사과 하나만 주세요.
- '하나'에 보조사 '만'이 결합되어 있다.
- ④ 우리의 이념 중 첫째는 진리이다.
- '첫째'에 보조사 '는'이 결합되어 있다.

69. 정답: [③]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불규칙 활용의 사례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일컫다'는 '일컫고, 일컫지, 일컬어, 일컬어서' 등으로 활용하므로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깨닫다'는 '깨달으니, 깨달아서'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② '눕다'는 '누워, 누으니' 등과 같이 어간이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④ '푸르다'는 '푸르러, 푸르러서' 등과 같이 어미가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⑤ '파랗다'는 '파래, 파래서' 등과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활용을 보인다.
-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② 단어
㉔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70. 정답: [③]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목적어의 특성에 관한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된 것만 목적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㉔의 '우유나'처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것도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우유나 마실까?"라는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역시 동작을 나타낸다. 두 문장에서 '빵을'과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각각 '먹다'와 '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 ②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여 있어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그런 내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주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 서술어 '먹었다'의 속성상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는 서술어 '고우셨다'의 속성상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로 보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빵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빵') 다음이므로 목적격 조사로 '을'이 쓰였고 '우유를'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우유') 다음이므로 목적격 조사로 '를'이 쓰였다. 이로 보아,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 정답: [⑤]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

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상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이므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③ '멋있게 잘하다.'의 의미로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능담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72. 정답: [㉔]

출처: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5번

해설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이해하기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 ① ㄱ은 두 문장이 대조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② ㄷ은 안긴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처럼 쓰인 경우이고, ㄹ은 안긴 문장이 '영수'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3. 정답: [㉓]

출처: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의문문의 종류 파악

<보기>의 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수사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에 제시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의 용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각 의문문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이곳에서 집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요?
→ 이 문장은 청자에게 대답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청자에게 '차를 이용할 경우 이곳에서 집까지의 소요 시간'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무려면 나만 한 사람이 또 있으랴?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나의 뛰어난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에게도 천재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나에게는 천재성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이런 일이 힘들어 봐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이런 일은 힘들지 않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힘들어 봐야'라는 구절로 보아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로 묻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누가 모르니?

→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는 내용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꼬마들도 알 만한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74. 정답: [㉔]

출처: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3번

해설

정답해설: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㉔로, ㉑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③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75. 정답: [㉑]

출처: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경문장의 구조 분석

<보기>의 ㉑, ㉒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안은문장에 안긴 절을 유형별로 바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㉑의 ㉒에서는 안긴 절을 만드는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㉒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로서, 관형절을 만드는 어미 '-ㄴ'이 쓰였다. ㉑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㉑에는 두 개의 주어가 모두 나타나 있다.
→ ㉑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 '저것'과 안긴 절의 주어 '우리가'는 서로 다르므로 둘 다 나타나 있다.
- ③ ㉑의 ㉒와 ㉓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㉒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다'와 '㉓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다'는 서로 대칭적이고 독립적이다. 이들은 '나열'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고'를 통해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④ ㉑의 ㉒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㉑에서 ㉒의 주어는 '네가'인데, ㉒에 동일한 주어가 사용되어 있으므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어 있다.
- ⑤ ㉑의 ㉒와 ㉑의 ㉓는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 ㉑의 ㉒는 관형절 '우리가 입학할'이며, ㉑의 ㉓는 명사절 '네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이다. 따라서 안긴 절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76.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목적어의 쓰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실제의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목적어의 전반적인 특징을 탐구해 보는 문항이다. ㉔의 '우유나'처럼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된 것도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우유나 마실까?"라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먹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보다' 역시 동작을 나타낸다. 두 문장에서 '빵을'과 '모습을'이라는 목적어는 각각 '먹다'와 '보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 ②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에서 '빵을'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놓여 있어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에서 '그런 내 모습'이라는 목적어는 주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 서술어 '먹었다'의 속성상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는 서술어 '고우셨다'의 속성상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로 보아,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빵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빵'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고, '우유를'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 '우유' 다음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다. 이로 보아,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7. 정답 : [②]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A형>13번

해설

[출제의도] 용언의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파래서'는 어간인 '파랄-', 어미인 '-아서'의 형태가 모두 변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① '오너라'는 어간 '오-'에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아라'가 아닌 '-너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③ '지어'는 어간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짓-'에서 '스'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④ '문다'는 어간 '문-'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문-'이 '물-'로 변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하다'는 어간 '하-'에 어미 '-어'가 결합하므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78.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의문문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에서 말하는 이는 '어디'에 관한 정보를 설명해 주도록 듣는 이에게 요구하고 있고, ㄴ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에게 '지금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듣는 이에게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지만, ㄷ~ㅁ은 그렇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ㄱ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면, ㄴ은 그러한지의 여부, 즉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한다.
- ② ㄷ은 '나는 이 상자를 들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 ③ ㄹ은 형태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이나 감탄문과 동일하다.
- ④ ㅁ은 상대방에게 그만두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명령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 (1) 국어와 앞 / (나) 국어의 구조 / ⑤ 의미
- ㉔ 문장, 담화의 다양한 의미 생성 방식을 탐구한다.

79.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오늘은 무척 의미 있는 하루였다.'에서 '의미 있는'을 서술절로 볼 수 없다. '의미 있는'은 '하루'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나는'과 '하였다', '선생님께서'와 '내 주신'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다.
- ② '선생님께서 내 주신'은 명사 '숙제'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③ '함께'를 '모여'로 고치면, '은 가족이 모여'와 '(은 가족이) ~ 하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 된다.
- ⑤ ㉔은 '특별한 ~ 없었지만'과 '오늘은 ~ 하루였다'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어진문장이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80. 정답 : [①]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해설

접속어의 역할 파악

'그렇기 때문에', '반면' 등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연결을 통해 문장, 문단 간의 결합력(응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접속부사의 역할은 내용 생성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접속부사의 사용은 독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보다 독자의 내용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준다.
- ④ 여러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이어지는 문장의 강조보다 문장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도움을 준다.

81. 정답 : [④]
출처 : 2013 인턴넷수능 화작복본A형

해설

피동사와 사동사의 구분

밑줄 친 부분이 피동사인 것은?

이 문제는 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피동사와 사동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피동사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되어 형성되고, 사동사는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는 흰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본다.
→ '덮이다'는 '덮다'의 피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는 남들을 잘 웃겼다.
→ '웃기다'는 '웃다'의 사동사이다.
- ②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고 있다.
→ '녹이다'는 '녹다'의 사동사이다.
- ③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 '들이다'는 '들다'의 사동사이다.
- ⑤ 두 귀를 중궁 세우고 열심히 들었다.
→ '세우다'는 '서다'의 사동사이다.

82.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시제 표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으'를 통해서 '-던'과 '-었던' 사이에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모두 과거의 어떤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었던'은 그 일이 옛일이라는 점을 좀 더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니던 영화관이다. / 여기가 내가 자주 다닌 영화관이다.'에서 '영화관에 다닌 일'은 과거의 일에 해당한다.
- ② '하던 일을 마저 해치우자.'에서 '하던 일'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일을 가리킨다.
- ③ '출생'은 과거에 단 한 번만으로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속성을 갖는 행위에 '-던'이 사용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 ④ '바람에 쓰러졌던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던 나무'에 비해 '쓰러지는' 행위가 완결된 느낌을 준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83. 정답 : [②]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피동문의 유형 분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의 '읽힌다'에는 접사 '-히-'가, ㄴ의 '들려'에는 접사 '-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둘은 파생적 피동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의 '끓어졌다'는 '-어지다'가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피동에 해당하고, ㄷ의 '당하다'는 말 자체에 피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휘적 피동에 해당한다.

84. 정답 : [①]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높임 표현의 이해 및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에서 '드렸다'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문장의 주체는 '그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ㄴ의 '깨서'와 '-시-'는 주체인 '삼촌'을, ㄷ의 '깨서'와 '-시-'는 주체인 '숙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 ③ ㄴ의 '뵈자고'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 ④ ㄷ의 '요'와 ㄴ의 '-십시오'는 각각 상대방인 '엄마'와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 ⑤ ㄴ의 '말씀'은 상대방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말을 낮춘 낮춤 말이다.

85. 정답 : [①]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1)에서는 '지금'이라는 말로 보아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고, (2)에서는 '지난주'라는 말로 보아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며, (3)에서는 '내일'이라는 말로 보아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은 '사건시 = 발화시', (2)는 '사건시 > 발화시', (3)은 '사건시 < 발화시'로 표시할 수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㉔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86. 정답 : [⑤]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시제 표현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확인 1] '-겠-'의 쓰임

‘-겠-’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나,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확인 2] a와 b의 ‘-겠-’의 쓰임

모두 추측, 추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a는 현재의 일을 추측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1] ‘-은’과 ‘-는’의 쓰임

‘-은’은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는’은 동사와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확인 2] ‘읽은’과 ‘읽는’의 시제

‘읽은’은 사람들이 이미 책을 읽었다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읽는’은 사람들이 지금 책을 읽고 있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확인 1] ‘-는’의 쓰임

‘-는’은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확인 2] ‘오는 기척이 들린다’와 ‘오는 기척이 들렸다’

‘오는 기척이 들린다’는 현재 동작이 진행 중임을, ‘오는 기척이 들렸다’는 과거에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뒤에 오는 서술어 때문에 시제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는’에 의해 진행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확인 1] ‘가다가’의 시제

‘가다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a에서는 ‘가다가’가 뒤의 서술어 ‘왔다’에 의해 과거의 의미를 지닌다.

[확인 2] ‘가다가’와 ‘갔다’의 비교

‘가다가’와 ‘갔다’는 모두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④ [확인] ‘가다가’와 ‘갔다’의 차이점

‘가다가’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고 중단한 것이며, ‘갔다’는 목적지까지 다 가서 일단 그 ‘가’는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자리에 앉아라.

→ “영수는 빨간색을 좋아하니, 파란색을 좋아하니?”에서 밑줄 친 ‘좋아하니’는 화자가 격식을 갖추어 청자를 낮추는 표현 중 하나인 ‘해라체’에 해당한다. ③의 “자리에 앉아라.”에서 ‘-아라’는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리에 앉게.

→ ‘-게’는 하계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② 자리에 앉으오.

→ ‘-(으)오’는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④ 자리에 앉아요

→ ‘-아요’는 해요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으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어미이다.

89. 정답 : [③]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문장 종결 표현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확인 1] ㄷ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김 대리는 안 추워?’라는 ㄷ의 문장을 보면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나 동기가 김 대리에게 한 말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 달라는 요청 혹은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확인 2] 바꾼 문장의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ㄷ의 문장을 ‘김 대리, 에어컨 좀 꺼 줘.’로 바꾼다면 에어컨을 꺼 달라고 명령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ㄷ의 의문문을 명령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게 되므로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ㄱ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ㄱ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도서관에서 떠드는 친구에게 “시끄러워 공부 안 되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지만 ‘조용히 해라.’라고 명령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확인] ㄴ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ㄴ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야외 활동 중 친구에게 “먹구름이 물러오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이다. 그런데 청자가 “그만 짐으로 들어 갈까?”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비 오기 전에 또는 비를 맞기 전에 ‘서둘러 짐으로 들어가자.’는 청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확인] ㄹ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ㄹ의 문장을 보면 교사가 제자를 나무라며 “너는 도대체 몇 살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의문문인데, 문장의 기능은 ‘나이에 맞게 행동 하라’는 명령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자가 실제 자신의 나이를 묻는 것으로 인식하여 “열아홉 살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청자는 문장의 종류(의문문)와 기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⑤ [확인] ㄴ의 문장 종류와 의미 파악하기

ㄴ의 문장을 보면 화자는 몹시 무더운 날 후배에게 “야, 정말 목이 타는구나!”라고 말한다. 그런데 청자가 화자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면 청자는 문장의 기능(시뻐한 물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명령하는 의미)과 문장의 종류(감탄문)가 다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 정답 : [③]

출처 : 2013>고3 10월 학력평가(서울)>국어 A형>15번

87. 정답 : [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피동문을 쓰면 동작주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즉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고 표현하면, 동작주인 ‘개’의 행위는 잘 부각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피동문으로 표현할 경우 주어로 나타나는 피동작주(여기서는 ‘사람’)에 초점이 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능동문을 쓸지 피동문을 쓸지는 어떤 대상에 초점을 들지와 관련이 있다.

②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피동작주(여기서는 ‘사람’)가 주어가 되어 피동작주에 초점이 가게 된다.

③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라는 문장에서는 피동작주인 사람이 주어가 되어 초점을 받게 된다.

④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와 같이 피동문으로 표현하면 동작주인 ‘개’의 동작성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88. 정답 : [③]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상대 높임 표현의 적용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는 정도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이 문제는 상대 높임 표현의 등급에 대한 문제이다. 상대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느냐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도 나뉜다.

해설

15.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91. 정답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문장 종결 표현 파악

각 예문에 해당하는 문장 종결 표현을 골라 바르게 연결해 보자.

이 문제는 제시된 예문에 사용된 문장 종결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의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나뉜다.

[문제 풀이 방법]

- ① - ㉠ 형,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갔어.
 → ㉠은 청자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평서문이다. 평서형 종결 어미인 '-어'가 쓰였다.
- ② - ㉢ 철수는 노래도 잘 부르는구나.
 → ㉢은 철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감탄형 종결 어미인 '-구나'가 쓰였다.
- ③ - ㉣ 다음 열차는 몇 시에 도착합니까?
 → ㉣은 청자에게 열차의 도착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의문문이다. 의문형 종결 어미인 '-니까'가 쓰였다.
- ④ - ㉡ 집에 일찍 들어가라.
 → ㉡은 청자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명령형 종결 어미인 '-아라'가 쓰였다. '아'는 어간 '가-'의 모음 'ㅏ'와 같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 ⑤ - ㉤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 ㉤은 청자에게 화자와 자주 보는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청유문이다. 청유형 종결 어미인 '-자'가 쓰였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92. 정답 : [⑤]
 출처 : 2013 포스 화법과 작문

해설

어법에 맞는 표현 이해

작문 과정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장 성분의 호응이나 생각의 오류, 이중 사동의 오류, 이중 피동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의 '되어지다' 부분은 '-되다',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⑤의 '밝혀지게 되었다'도 마찬가지로 '-어지다', '-게 되다'의 피동 표현이 중복 사용되었으므로 같은 종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식탁에서 서재로 옮기고 있는'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다.
- ② '이 작품의 주제는 ~ 그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 ③ '정지시키게 했다'라는 표현은 '-시키다', '-게 했다'의 사동 표현이 중복 사용된 문장으로 이중 사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다.
- ④ '절대로'라는 부사와 '읽어야 한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다.

93. 정답 : [②]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확인 1] 이중 피동의 특성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이 겹쳐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확인 2] '가려져'의 분석

②의 '가려져'의 기본형인 '가려지다'는 '가리-'라는 어간에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로, 피동 표현이 하나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가려져'는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확인] '밀겨지다'의 분석

'밀겨지다'의 기본형인 '밀겨지다'는 '밀-'이라는 어간에 '-기-'라는 피동 접사,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③[확인] '잡혀진다'의 분석

'잡혀진다'의 기본형인 '잡혀지다'는 '잡-'이라는 어간에 '-히-'라는 피동 접사,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④[확인] '관측되어진다'의 분석

'관측되어진다'의 기본형인 '관측되어지다'는 '관측-'이라는 어근에 '-되다'라는 피동 표현,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⑤[확인] '보여졌다'의 분석

'보여졌다'의 기본형인 '보여지다'는 '보-'라는 어간에 '-이-'라는 피동 접사, 그리고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결합된 말이다.

94. 정답 : [②]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피동 표현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에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 '밝히-'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밝혀졌다'는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에서 '안겼다'는 용언의 어간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것이고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에서 '잡아졌다'는 용언의 어간 '잡-'에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를 함께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 예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와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각각 '아기를', '진실을', '마리들'과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며 피동문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김 형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주어에 해당하는 말 '엄마', '김 형사', '열 명'은 피동문에서 '엄마에게', '김 형사에게', '열 명에게'와 같이 부사격 조사 '에게', '에'가 붙어 있다.
- ④ '포수 열 명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의 경우는 '포수 열 명이 모두 함께 토끼 한 마리만을 잡다.'와 '포수 열 명이 각각 토끼 한 마리씩 잡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 첫 번째 의미만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경우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는 엄마의 행위로 아기가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에 의해 밝혀졌다.'는 사건의 진실이 김 형사의 행위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토끼 한 마리가 포수 열 명에게 잡아졌다.'는 토끼가 포수 열 명에게 잡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서 피동문의 주어는 주체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동 표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95.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국어의 문법 범주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주동문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나 ㉕의 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목적어를 가진 주동문만 사동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에서 주동문에 나오는 '웃을'이라는 목적어는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㉔에서는 주동문의 '을다'에 접미사 '-리-'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고, ㉕에서는 주동문의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들었다.
- ④ ㉔에서는 '형'이라는, ㉕에서는 '엄마'라는 새로운 동작 주체가 나타나고 있다.
- ⑤ ㉔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되었고, ㉕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되었다.

96. 정답 : [㉑]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피동 표현의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간드러지다'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被動)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간드러지다'는 '목소리나 땀이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물리다'는 '물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③ '굽히다'는 '굽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④ '담기다'는 '담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⑤ '뒤바뀌다'는 '뒤바꾸다'의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③ 문장

㉑ 국어 문법 범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며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97. 정답 : [㉓]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그랬지'는 '그리하였지'의 준말이다. 여기서 '-었-'은 작년 소풍 전날에 비가 왔지만 소풍날에는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소연이 말한 내용은 작년 소풍 전날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므로, 발화시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는 '-았-'을 사용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 ② ㉔에 사용된 '-았-'은 소풍 전날 비가 온 사건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 ④ ㉔에 사용된 '-었-'은 어떤 상황이 발화시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㉔는 '-았-'을 사용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참고(표준국어대사전)

-었-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예)예전에는 명절에 선물로 설탕을 주었다. / 철수는 이미 밥을 먹었다.

/ 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좋았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예)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 / 간방의 비로 강물이 많이 불었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

(예)야,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98. 정답 : [㉓]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주체 높임 표현의 이해

다음 대화 중 주체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서 주체 높임 표현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알고 있다. 주체 높임 표현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며,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기도 하고, '계시다, 잡수시다' 등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ㄱ

→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독감도 쉽게 낫는다니 다행이지요.'에서는 종결 어미 '-지요'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대 높임 표현이 쓰였을 뿐 주체 높임 표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 '교장 선생님께서는 어디 가셨나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ㄴ

→ '독감 때문에 병원 가신다고 아까 나가셨어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ㄷ

- '맞다, 며칠 전부터 편찮으시다고 하셨지.'에서는 주체 높임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④ =
- '연세가 많으셔서 더 힘드신가 봐요.'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이 쓰였다.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99.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않았니'는 부정 표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현'과 이전에 영화를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않았니'는 함께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실치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생님은 '못'이 능력 부정, '안'이 의지 부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활용하여 청자인 학생의 세부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묻고 있다.
- ②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안'과 '못'이 사용되지만,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마라'와 '말자'가 사용된다.
- ③ (다)의 '않-'은 상대 부정으로, 의미상 의지 부정 또는 능력 부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 ⑤ '영수', '책', '삿다' 중 어떤 것을 부정하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100. 정답 : [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높임 표현의 적용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일상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높임 표현을 문법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높임 표현에서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 :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를 쓰지 말아야 한다.
→ 대화 중 ㉠에서 주어진 '그 크기의 상품은'은 이 상황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를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오류가 자주 벌어지는 것은 과도하게 상대방을 높이려는 데서 비롯된 잘못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서술어에 '-세요'를 썼으므로 주어에 '께서'를 붙여야 한다.
→ '께서'는 신체의 일부분인 '발'을 높이는 데 쓸 수 없다.
- ② ㉢ :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 '고마워요.'와 '고맙습니다.'는 모두 대화 상대방, 곧 청자를 높이는 표현일 뿐, 생략된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다.
- ③ ㉣ : 객체인 '손님께'를 높이기 위해 '-시-'를 써야만 한다.
→ '-시-'는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이므로 객체를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 : 대화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오'를 빼야 한다.
→ 이 대화에서는 손님이 종업원에게 계속 높임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상대방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1. 정답 : [(1) 현재, (2) 미래, (3) 과거, (4) 현재, (5) 미래]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시제의 구분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자.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서 사용된 시제를 보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실현하는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 풀이 방법]

- (1) 자기 앞에 가는 철수를 불러라.
→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 '-는'이 쓰인다. 따라서 (1)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이다.
- (2)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 혹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져 '-(으)ㄹ 것'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2)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미래이다.
- (3) 어제 읽은 책은 무척이나 감명 깊었다.
→ 과거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 '-(으)ㄹ'이 쓰인다. 따라서 (3)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과거이다.
- (4) 예쁜 꽃을 보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는 형용사의 경우 '-(으)ㄹ'이 쓰인다. 따라서 (4)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이다.
- (5)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 혹은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져 '-(으)ㄹ 것'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5)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시제는 미래이다.

102. 정답 : [②]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의 동시 적용

다음 문장을 '해체'의 부정 명령문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을 동시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상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을 분명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
→ '올려놓아라'를 해체의 부정 명령형으로 바꾸면 '올려놓지 마'가 된다. 참고로 '해라체'의 부정 명령형은 '~지 마라'가 된다. '~지 말아라'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아.
→ '올려놓아'는 해체의 긍정 명령형이다.
- ③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으세요.
→ '올려놓으세요'는 해오체의 긍정 명령형이다.
- ④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말게.
→ '올려놓지 말게'는 하게체의 부정 명령형이다.
- ⑤ 책상 위에 물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 '올려놓지 마십시오'는 하십시오체의 부정 명령형이다.

103. 정답 : [㉓]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A형>15번

해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 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㉓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㉑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㉑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㉑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㉓

[오답피하기] ㉑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도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㉑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㉑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㉒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도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㉑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㉒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㉔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㉑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㉔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㉕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㉑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㉕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04. 정답 : [㉑]

출처 : 2013>2014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A형>14번

해설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㉑로, ㉑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

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㉑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㉒ ㉑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㉓ ㉑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㉑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㉔ ㉑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05. 정답 : [㉔]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확인] 같다? ㉑의 뜻

‘자면서 뾰득뾰득 이를 같다.’의 ‘같다’는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고 문질러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같다’ ㉑과 서로 뜻이 다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인] 같다, 같다², 같다³은 동음이의어 관계

‘같다’, ‘같다²’, ‘같다³’은 발음이 같을 뿐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② [확인] 같다? ㉑의 뜻

‘컴퓨터의 부속품을 새 것으로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같다’ ㉑은 ‘이미 있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③ [확인] 같다? ㉑의 용례

‘숫들에 칼을 같았다.’에서 ‘같다’는 ‘날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 숫들에 대고 문지르다.’라는 의미이므로, ‘같다’ ㉑의 용례로 볼 수 있다.

⑤ [확인] 같다? ㉑의 유의어

‘일구다’는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오키다.’라는 뜻이므로, ‘같다’ ㉑의 유의어로 사용할 수 있다.

106. 정답 : [㉑]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반의 관계의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는 X가 Y의 남편이면 Y는 X의 아내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㉒ 역시 X가 Y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Y는 X가 주는 무엇인가를 받는 관계가 되므로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㉑와 ㉒은 모두 반의 관계 중 상대 관계를 이루는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는 공통된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성(性)’이라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상반되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② ㉑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가 성립된다.

③ ㉑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가 성립된다.

④ ㉠의 '서다'는 다의어로,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축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앉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추다.'의 의미를 지닐 때는 '가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

107. 정답 : [④]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반의 관계의 양상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길다/짧다'는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어에 해당한다. '길다'와 '짧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길지 않다/짧지 않다'가 가능하고 '길지도 짧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달다'와 '쓰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달지 않다/쓰지 않다'가 가능하고 '달지도 쓰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 ② '덜다'와 '춥다'는 동시 부정이 가능하며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 '덜지 않다/춥지 않다'가 가능하고 '덜지도 춥지도 않다'가 가능한 것이다.
- ③ '살/죽음'의 경우 '살'과 '죽음'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살'과 '죽음'으로 완전히 쪼개진다.
- ⑤ '들어간다/나오다'는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낸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삶

(나) 국어의 구조

⑤ 의미

㉠ 단어의 의미 유형과 단어 간 의미 관계, 의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한다.

108. 정답 : [③]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문마루 국어A

해설

동음이의어의 의미 분석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확인 1] '부르다⁰¹'과 '부르다⁰²'의 활용 특성

'부르다⁰¹'과 '부르다⁰²'는 '불러', '부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확인 2] 어간 형태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

'부르다'가 '불러'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부르다'의 어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③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부르다⁰¹'과 '부르다⁰²'

'부르다⁰¹'은 동사에 속하고 '부르다⁰²'는 형용사에 속한다. 둘은 서로 다른 표제어에 해당하는 말로서 소리는 같은데 의미는 다르다. 그러므로 둘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②[확인] '부르다⁰¹'의 문장 구조

'부르다⁰¹'은 '~을', '~을 ~에', '~을 ~으로', '~을 ~고' 등의 문장 구조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때 공통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④[확인]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부르다⁰¹'과 '부르다⁰²'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다.

⑤[확인] '배가 부른 향아리가 놓여 있다.'에서 '부르다'의 의미

'배가 부른 향아리가 놓여 있다.'에서 '부르다'는 '물룩하게 부풀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부르다⁰²' 「2」의 뜻

에 해당한다.

109. 정답 : [㉠]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의미 유형 및 의미 관계에 관한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농부가 밭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는 '밭이 있는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를 자르다.'라는 의미의 용례가 된다. 그러므로 '치다2' ㉠의 용례로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가리키며,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 ② '때리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 따위로 아프게 치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치다1'의 ㉡의 의미와 유사하다.
- ③ '맞다'는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져 몸에 해를 입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치다'의 속담에서 '치다'는 '요구하다', '맞다'는 '요구당하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치다'와 '맞다'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치다2' ㉢은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라는 뜻이므로, 대상이 가축이나 가금이다. 따라서 '아이'를 대상으로 하여 '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다.

110. 정답 : [㉢]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난관(難關)'은 '어려운 고비'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어려운'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어려운 난관'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 ㉡의 '여생(餘生)'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남은'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남은 여생'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 ㉢의 '숙원(宿願)'은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오랜'과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오랜 숙원'은 중복된 표현의 사례이다.
- ㉣의 '소견(所見)'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짧은 소견'이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 ㉤의 '답사(踏査)'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미리 답사하다'라고 써도 의미가 중복되지 않는다.

111. 정답 : [④]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문마루 국어A

해설

반의어의 종류 파악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확인 1] '반의어'의 개념

반의어는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로, 한 쌍의 말 사이에서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확인 2] '모순 개념'의 의미

문제은행

반의어 중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을 '모순 개념'이라고 한다. 그런데 '흰색'과 '검은색'은 중간에 '회색' 등 수많은 색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간적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대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1] '선언 개념'의 의미

선언 개념은 개념들 사이에 서로 겹침이 없이 쌍을 이루는 것이다.

[확인 2] '선언 개념'의 적용

'생물'과 '무생물'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선언 개념의 반의어이다.

②[확인 1] '상관 개념'의 의미

상관 개념은 개념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큰 것을 말한다.

[확인 2] '상관 개념'의 적용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상호 관련성이 강한 상관 개념의 반의어이다.

③[확인 1] '상대 개념'의 의미

상대 개념은 개념들 사이의 상호 의존도가 작은 것을 말한다.

[확인 2] '상대 개념'의 적용

'물'과 '불'은 상대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작은 것으로 상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상대 개념의 반의어이다.

⑤[확인 1] '반대 개념'의 의미

반대 개념은 중간적 존재가 있는 것을 말한다.

[확인 2] '반대 개념'의 적용

'길다'와 '짧다'는 중간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대 개념의 반의어이다.

112. 정답 : [①]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

(가)를 참고할 때 (나)의 대화에서 ㉠~㉢의 기본형 '들다'가 국어사전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표제어로 처리되는 것은?

이 문제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동사 '들다'의 다양한 용례를 보고, 그 용례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의어는 사전에서 하나의 표제어로 처리하며,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각각을 별개의 표제어로 처리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

→ ㉠의 의미는 '날이 날카로우 물건이 잘 배어지다.'라는 뜻으로, '들다'의 예 해당한다. 따라서 ㉠~㉢와 별개의 단어(표제어)로 처리한다. 즉 ㉠은 ㉡~㉢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는 모두 서로 연관된 의미를 나타내는 다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② ㉡

→ ㉡의 의미는 '어떤 일에 시간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 해당한다.

③ ㉢

→ ㉢의 의미는 '어떤 일에 든,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 해당한다.

④ ㉣

→ ㉣는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의 뜻으로, '들다'의 예 해당한다.

⑤ ㉤

→ ㉤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라는 뜻으로, '들다'의 예 해당한다.

113.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의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c를 몇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지' 뒤에 '는'을 붙이면 된다. 주어진 문장에서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꾸고 해도 몇 사람은 오지 않았다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다.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 반면, '못' 부정문은 주로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관형격 조사 '의'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중의성이 생길 경우이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려진 그림인지, 아버지가 가진 그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로 확정하려면 '이것은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다.'로 바꾸면 된다.

② b는 조사 '와'에 의해 두 문장 성분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중의성이 문제가 된다.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내 친구도 결혼하고 그녀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올해 둘이 서로 결혼했다는 의미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 친구가 그녀와 올해 결혼하였다.'로 수정하면 된다.

④ d는 의존 명사 구문의 불명확성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그가 웃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그가 웃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가 웃는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가 웃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로 수정하면 된다.

⑤ e는 수식 구조의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그녀의 표정이 밝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녀의 표정이 밝다는 의미로 확정하려면 '그녀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로 수정하면 된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읽

(나) 국어의 구조

⑤ 의미

㉠ 문장, 담화의 다양한 의미 생성 방식을 탐구한다.

114.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얼굴에 생기가 돋다.'의 '돋다'는 '어떤 기운이나 빛이 겹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반의어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의 뜻을 지니는 '가시다'가 적절하다. ①, ②에 제시된 '피다'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의 뜻을 지녀 오히려 유의어에 가깝다. ㉡에서 '머물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는 '들다'가 쓰인 것은 ①, ④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의 '들다'는 '생각이나 노선을 바꾸다.'의 뜻이고 ④의 '들다'는 '불일로 이곳저곳을 다니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②의 '들다'는 '어떤 장소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다.'의 뜻을 지니며 '멈추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③의 '들다'는 '기능이나 체제가 제대로 작용하다.'의 뜻을 지니며 역시 '멈추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⑤의 '들다'는 '길을 끼고 방향을 바꾸다.'의 뜻을 지니며 '직진하다'가 반의어가 될 수 있다.

㉢에서 '한참을 돌아서 가다.'의 '들다'는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비껴 가다.'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때의 반의어는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의

문제은행

뜻을 지니는 '지르다'가 적절하다. ①, ③, ⑤의 '가르다'는 '나누다, 구분하다, 승부를 정하다' 등의 뜻을 지녀 '돌다'의 반의어가 되기 어렵다.

115. 정답 : [⑤]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첫 번째 예문의 '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길쭉한 신체 부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다리'는 '아래쪽에 붙어서 물체를 받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는 동의 관계에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예문의 '차다'는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차다'는 '발로 내어 지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
- ② 첫 번째 예문의 '흠치다'는 '남의 물건을 남몰래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흠치다'는 '물기나 때 따위가 묻은 것을 닦아 말끔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
- ③ 첫 번째 예문의 '배'는 '신체 일부'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배'는 '운송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
- ④ 첫 번째 예문의 '들다'는 '날이 날카로워 잘 베어지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예문의 '들다'는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의 관계에 있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116. 정답 : [②]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의 문장을 다듬어 중의성을 해소하려고 한다. 적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고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중의성이 생기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중의적인 문장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 나는 남편보다 딸을 좋아한다.
→ ㉡은 비교의 대상이 '남편과 나'인지 '나와 딸'인지 불분명한 문장이다. 따라서 '남편은 내가 딸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딸을 좋아한다.' 또는 '남편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딸을 좋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에는 여전히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딸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하다.'라는 뜻과 '남편이 딸을 좋아하는 정도보다 내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가 더하다.'라는 뜻의 중의성이 남아 있다. 또한 ㉡은 ㉠과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의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친구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보조사 '은/는'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 부분 부정의 뜻으로만 읽힌다.
- ③ ㉢ : 할머니께서 자주 한 개와 사과 한 개를 주셨다.

- 자두와 사과의 개수를 따로 말함으로써 개수의 중의성을 해소했다.
- ④ ㉣ :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날 설레게 한다.
- 꾸미는 말인 '아름다운'이 꾸밈을 받는 말인 '미소'에 가깝도록 어순을 교체하여 중의성을 해소했다.
- ⑤ ㉤ : 그는 마주 오는 이룩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 '웃으면서'를 '그'의 서술어로 한정하여 씬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했다.

117. 정답 : [②]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들어서다', '들어오다'는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 서다(들어서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들어오다)' 등으로 '들다1'㉠의 뜻을 살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나누는 것은 하나의 표제 단어 안에서 단어 관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며, 대개 번호가 앞인 것이 중심적 의미, 뒤의 것이 주변적 의미이다. 표제가 번호가 별개인 것은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③ '전국에 풍년이 들다'에서 쓰인 '들다'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나다'의 뜻으로 '풍년이 들다, 한파가 들다, 가뭄이 들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예문의 '들다1'㉠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들다2'㉡ 뜻의 유의어로는 '가지다, 쥐다' 정도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올리다'는 들어맞지 않는다. 만약 '역기를 들다, 손을 들다'에 쓰인 '들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면 '올리다'를 유의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⑤ '들다'의 속담은 '들다'와 '나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나, '들다2'의 속담에 쓰인 '나다'는 '일을 마치고 나니'와 같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서 뜻이 다르다.

118. 정답 : [①]
출처 : 2013>고3 9월 모평(평가원)>국어 B형>12번

해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제15항의 내용에 대해 '앞앞이[아바피]'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제13항에서는 출발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등과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앞이'의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이'는 [아피]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앞'은 [아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은 ①로,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무르피야]로 발음하며, '무릎 아래'의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무르바래]로 발음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녘이나'와 '서녘에서'의 '이나'와 '에서'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서녀기나]와 [서녀케서]로 발음한다. ③ '걸으로'의 '으로'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거트로]로 발음한다. '걸아가미'의 '아가미'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한다. ④ '배꽃이'의 '이'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배꼬치]로 발음한다. '배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배꼬뒤]로 발음한다. ⑤ '빛에'와 '빛이며'의 '에'와 '이며'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한다.

119. 정답: [㉡]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해설

표준 발음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12-1'의 '붙임'을 보면, 'ㅂ'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에 두 음을 합쳐서 'ㅃ'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학'의 발음은 [이팍]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ㅂ' 뒤에 'ㄷ'이 결합되어 [ㅃ]으로 발음한다.
- ② '12-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는 [ㄴ]으로 발음한다.
- ④ '12-2'의 '붙임'을 보면, 'ㄷ'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
- ⑤ '12-3'에서 알 수 있듯이,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은')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120. 정답: [㉠]
출처: 2013 인터넷수능 화적독문B형

해설

남북한 사전의 특성 파악

(ㄱ)은 남한과 북한 사전의 자모음 배열 순서이다. 이를 참고하여 (ㄴ)의 단어들을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사전 배열 순서의 차이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자음자와 모음자의 배열 순서를 이해하여 네 단어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행동, 깨, 이름
→ 제시된 배열 순서에 따르면 남한은 단어의 첫머리가 'ㄱ, ㅇ, ㅎ' 순이어야 하고 모음자는 'ㅏ, ㅑ'의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깨, 이름, 행동, 향기'의 순서가 옳다. 북한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가 'ㅎ, ㄱ, ㅇ'의 순이어야 하고 모음자는 'ㅑ, ㅏ'의 순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기, 행동, 깨, 이름'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행동, 이름, 깨
→ 남한은 배열 순서가 맞지만 북한은 '깨'와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 ③ (남한) 깨, 이름, 행동, 향기, (북한) 향기, 이름, 깨, 행동

- 남한은 배열 순서가 맞지만 북한은 '이름'과 '행동'의 위치가 바뀌어야 옳다.
- ④ (남한) 이름, 향기, 행동, 깨, (북한) 향기, 이름, 깨, 행동
→ 남한은 '깨'를 '이름' 앞에 놓고 '향기'와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며, 북한은 '이름'과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 ⑤ (남한) 이름, 향기, 행동, 깨, (북한) 향기, 행동, 깨, 이름
→ 남한은 '깨'를 '이름' 앞에 놓고 '향기'와 '행동'의 위치를 바꾸어야 하며, 북한은 배열 순서가 옳바르다.

121. 정답: [㉡]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해설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음으로 끝나는 말'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어미·접미사'의 경우 연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육학년'의 경우, 그 환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이다. 즉, 'ㄱ, ㄷ, ㅂ, ㅈ'으로 끝나는 말' + 'ㅎ으로 시작하는 말'의 환경에서 'ㄱ, ㅌ, ㅍ, ㅊ'으로 변하는 경우로 '축약'에 해당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덟'의 받침 'ㄹ'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 '이야'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여덜비], [여덜비아]로 발음한다.
- ③ '걸'과 조사 '으로'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거트로]로 발음한다.
- ④ '빛'과 조사 '이', '은'이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비치], [비춘]으로 발음한다.
- ⑤ '밤낮'이 조사 '으로'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밤나즈로]로 발음한다. '낮일'의 경우에는 '일'이 모음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조사나 어미 등이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난닐]로 발음한다.

122. 정답: [㉢]
출처: 2013 수능완성 국어B형

해설

[정답찾기]

③의 '퍼서', '뾰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에서 모음 'ㅜ'가 탈락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유형분석노트]

문제 유형 파악	이 문항은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 유형과 관련하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

담화 분석 활동	한글 맞춤법 제1항과 이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다른 자료이다.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의 두 종류가 있음을 제시하고, 소리대로만 적는 경우 조사나 어미 등과의 결합 환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다는 것이다.
----------	--

유형 해결 전략	① '먹어'와 '먹은'은 [매거]나 [매근]처럼 소리대
----------	--------------------------------

123. 정답 : [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읽고', '읽기', '읽고'에서 'ㄱ' 앞이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읽다[의 따]', '읽지[막찌]'의 예를 고려하면, 음연 어간의 결합침 'ㄹ'이 모든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시된 예를 통해 국어의 모든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만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여덟'에서 어말이라는 조건을, '널다'와 '널고'에서 자음 앞에서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③ '밭-'의 경우 자음 앞에서 [밭:]으로 발음된다.
- ④ '흙'에서 어말이라는 조건을, '읽다', '읽지', '흙과'에서 자음 앞이라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124. 정답 : [①]
출처 : 2013 7030 최종정경 실전문우리 국어B

해설

발음 규정 이해,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확인 1] 제14항 규정

경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닭을'의 발음

'닭을'은 경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달글]로 발음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확인 1] 제15항 규정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겉옷'의 발음

'겉옷'은 받침 뒤에 보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로,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거툐]로 발음한다.

③ [확인 1] 제13항 규정

출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웃이'의 발음

'웃이'는 출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자기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오시]로 발음한다.

④ [확인 1] 제15항 [붙임] 규정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나, [붙임]에 따라 경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확인 2] '값어치'의 발음

'값어치'는 경받침이 모음 'ㄹ'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로, 경받침 중 하나만을 옮겨 [가버치]로 발음한다.

⑤ [확인 1] 제16항 규정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디귤음[디그슬] 지읊음[지으슬] 치읊음[치으슬] 키읊음[키으글] 티읊음[티으슬] 피읊음[피으블] 히읊음[히으슬]로 발음한다.

[확인 2] '디귤음'의 발음

'디귤음'은 [디그슬]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125. 정답 : [④]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B형

해설

이중 모음 발음의 적절성 평가

(가)를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표준 발음법 조항의 원리를 이해하여 실제 발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표준 발음법 조항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실제 자료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지식의'를 '지혜의'로 바꾸면 '의'의 발음도 달라진다.

→ '지식의'와 '지혜의'에서 '의'는 모두 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 '의' 앞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모음으로 끝나는 조사 '의'의 발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식의'는 '[지시계]'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해도 허용한다.

② '지식의'는 '[지시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사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지식의'를 '[지시기]'라고 발음하면 잘못된 발음이다.

→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할 수 없다.

⑤ '지식의'에서 '의'의 발음은 '법칙의 발견'에서 '의'의 발음과 동일하다.

→ '지식의'와 '법칙의'의 '의'는 모두 조사이므로 발음이 동일하다.

126.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해설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 비교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밭다'와 같이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소리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반따]로 발음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널지'의 경우 받침 'ㄹ'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이지만, 남한에서는 [널찌]로 발음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널찌]로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값도'는 남한의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의해 [값또]로 발음해야 하고,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 제9항 두 번째 항목에 의해 [값또]로 발음해야 한다.

② 남한의 '표준 발음법' 제10항과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 제9항은 모두 경받침을 각각 특정한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④ 남한의 '표준 발음법'의 예)에는 긴소리에 대한 표시가 드러나 있으나,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의 '례'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화어 발음법'에 원래 장음 표시가 없는 것인지, 제시된 자료에 단음만 제시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⑤ 남한은 어간 '밭-'과 '널-', 북한은 단어 '여덟'의 결합침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2) 국어와 얼 (나) 국어의 미래 ① 통일 시대의 국어

㉔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

다.

127. 정답: [㉔]

출처: 2013 7030 최종정경 실전문우리 국어B

해설

표준 발음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확인] '베갯잇'의 단어 형태와 발음

'베갯잇'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제30항의 '3.'에 해당됨) 이므로, [베갯닐 → 베갯닐]과 같이 발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확인] '벧머리'의 발음

'벧머리'는 제30항의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에 해당되는 단어이므로 [벧머리]로 발음한다.

③[확인] '깃발'의 발음

'깃발'은 제30항의 '1.'에 해당하는 단어이므로 [기발]이나 [길발] 두 가지로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확인] '한여름'의 발음

'한여름'은 파생어로, 접두사 '한' 뒤 단어의 첫음절이 '여'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⑤[확인] '숨이불'의 발음

'숨이불'은 합성어로, '숨'과 '이불' 사이에 'ㄴ' 음을 첨가하여 [숨니불]로 발음한다.

128. 정답: [㉓]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해설

표준 발음법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유희'에서 'ㄴ'은 '다만 3'에 의거하여 [ㅣ]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유희]로 발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자시계'에서 '시계'는 [시계]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2'에 의거하여 [시계]로 발음해도 옳다.

②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주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4'에 의거하여 [주이]로 발음해도 옳다.

④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는 [우리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다만 4'에 의거하여 [우리예]로 발음해도 옳다.

⑤ '가져갈 물건'에서 '가져'는 [가져]로 발음해서는 안 되고, '다만 1'에 의거하여 [가저]로 발음해야 옳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가) 정확한 발음

①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129. 정답: [㉓]

출처: 2013 수능특강 국어 B형

해설

한글 맞춤법 규정의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싸이어', '보이어', '누이어', '뜨이어'는 '싸-+-이-+-어', '보-+-이-+-어', '누-+-이-+-어', '뜨-+-이-+-어'로 분석할 수 있다. 원리 도출에 비추어 볼 때, '뺨어, 싸어'(ㄱ), '뵤어, 보여'(ㄴ), '뉘어, 누어'(ㄷ), '뜨어'(ㄷ)로 줄여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ㄷ, '뜨어'를 [띠어] 또는 [띠어]로 발음하지만, '띠어'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뜨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의 경우에는 관용상 '뜨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I (1) 국어와 규범 (나) 올바른 단어 사용

① 한글 맞춤법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130. 정답: [㉑]

출처: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사기(士氣)'와 '인기(人氣)'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결합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이 없다. 한자어는 단어 내부에서 일정한 규칙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한자어는 형태만으로 그 발음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된소리 유무를 일일이 표시해 주어 화자들이 표준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 소수[소:수](小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소수[소수](素數): 2, 3, 5처럼 1보다 크고, 1과 그 자체 외의 정수로는 나눌 수 없는 수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갈등(葛藤)'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평등(平等)'의 '평'은 'ㄹ'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넙-'은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넙게'는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여덟'의 '덟'은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열침'은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ㅈ, ㅊ, ㅌ), ㅂ(ㅂ, ㅃ,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미집'의 '미'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아침밥'은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된밥'의 '된'은 '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31. 정답: [㉑]

출처: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따르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엌에서'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커서]로 발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엌이'도 [부어키]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 따르면 'ㅌ'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안'과 연결된 '부엌 안'은 'ㅋ'을 대표음 [ㄱ]

으로 바꾸어서(제9항)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간]으로 발음해야 한다.

132. 정답 : [㉓]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 B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만 3'에서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음절의 '니'를 [ㅣ]로만 발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씩꿨다'의 '씩'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음절이기 때문에 [씩]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씨]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만 1'에 따르면, 용언 '찌다'의 활용형 '퍼서(찌어서)'는 [퍼서]가 아니라 [씨서]로 발음해야 한다.
② '다만 2'에 따르면, '주례사'의 '례'는 [례]로 발음하지 않고 표기대로 [례]로 발음해야 한다.
④ '다만 4'에 따르면, '거의'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또한 '다만 3'을 고려할 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는 [거의]와 [가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⑤ '다만 4'에 따르면, '우리의'의 '의'는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133. 정답 : [㉔]
출처 : 2013>2013 고3 4월 학평(경기)>국어 B형>14번

해설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총의사'에서 '의'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4. 규정으로 보아 [ㅣ]로 발음하지만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붙임1]의 규정에 의해 'ui'로 적어야 한다.
① '송례문'에서 '례'의 '케'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로 보아 '케'로 발음하며,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ye'로 표기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도에촌'에서 '에'의 '케'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케]로 발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퇴계원'에서 '계'의 '케'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케]나 [케]로 발음할 수 있으나, [케]로 발음되는 경우 'e'로 표기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134. 정답 : [1] 사회 방언 (2) 지역 방언 (3) 사회 방언 (4) 지역 방언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해설

방언의 종류 구분

다음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 보자.

이 문제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지역적 차이에 의해 생겨난 방언 차이와 사회적 변수에 의해 생겨난 방언 차이를 구분하면 된다.

[문제 풀이 방법]

지역 방언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생긴 방언을 말한다. 반면 사회 방언은 연령, 계층, 성별 등과 같은 차이 때문에 생긴 방언을 말한다. (1)을 보면 방언 차이가 10대와 80대라는 연령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2)에서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방언 차이를 야기했으므로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3)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방언 차이를 만들었으므로 사회 방언에 속한다. (4)는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역 방언에 속한다.

135. 정답 : [㉔]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문마무리 국어B

해설

표준 발음법 적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확인] 표준 발음법
'민주주의의 의의'의 세 번째 '의'는 제5항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중 모음 [ㅣ]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확인] 표준 발음법
'희망'과 '환희'는 모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다만 3'에 따라 단모음 [ㅣ]로 발음해야 한다.
③[확인] 표준 발음법
'민주주의의 의의'에서 두 번째 '의'는 조사이므로 '다만 4'에 의해 [케]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⑤[확인] 표준 발음법
'의'는 '첫음절 이외의 음절'에 해당하므로 '다만 4'에 의해 [ㅣ]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136. 정답 : [㉕]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B형

해설

표준 발음 추론

(가)의 ㄱ, ㄴ, ㄷ을 올바른 발음으로 고친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발음 오류를 올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발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에 제시된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㉕ ㄱ. [출기], [출글], ㄴ. [널따], [널꼬], ㄷ. [해님]
→ ㄱ의 '[출기], [출글]'은 연음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연음을 시킨 '[출기], [출글]'이 옳바르다. ㄴ은 겹받침 'aw' 중 'w'를 탈락시켜야 하므로 '[널따], [널꼬]'가 옳바르다. ㄷ의 '해님'은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표기 그대로 '[해님]'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 [출기], [출글], ㄴ. [널다], [널고], ㄷ. [해님]
→ ㄴ의 '[널다], [널고]'는 '[널따], [널꼬]'가 옳으며, ㄷ의 '[해님]'은 '[해님]'이 옳다.
② ㄱ. [출키], [출클], ㄴ. [널따], [널꼬], ㄷ. [해님]
→ ㄱ의 '[출키], [출클]'은 '[출기], [출글]'이 옳다.
③ ㄱ. [출키], [출클], ㄴ. [널다], [널고], ㄷ. [해님]
→ ㄱ의 '[출키], [출클]'은 '[출기], [출글]'이 옳으며, ㄴ의 '[널다], [널고]'는 '[널따], [널꼬]'가 옳다.
④ ㄱ. [출기], [출글], ㄴ. [널따], [널꼬], ㄷ. [해님]

→ ㄷ의 '행님'은 '해님'이 옳다.

137. 정답 : [㉓]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B형

해설

올바른 발음 평가

다음은 잘못된 발음 자료를 수집하여 고치는 탐구 활동의 일부이다. 수정 사항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발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발음을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발음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㉓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에서 'ㅅ'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술]' 대신 '[바출]'로 발음한다.
→ '발음'의 표준 발음은 '[바를]'이며 단순히 연음만 하면 된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ㄷ' 뒤에 'ㅣ'나 반모음 'y'가 올 때인데 '발음'은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를 하면 잘못된 발음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ㅑ'를 단모음으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바:]]' 대신 '[봐:]]'로 발음한다.
→ 자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 'ㅑ'는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ㅛ'를 그대로 연음시켜 발음해야 하므로 '[다님]' 대신 '[다임]'으로 발음한다.
→ '담임'은 '[다임]'과 같이 연음시키는 것이 맞다.
- ④ 중성에서는 겹받침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정: 따]' 대신 '[정: 따]'로 발음한다.
→ 국어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 발음한다.
- ⑤ 원칙상 긴소리는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므로 '[참말:]]' 대신 '[참말]'로 발음한다.
→ 긴소리가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면 짧게 변한다.

138. 정답 : [㉓]
출처 : 2014>고3 4월 학평(경기)>국어 B형>12번

해설

[출제의도] 띄어쓰기 이해하기

(다)에서 '뿐'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뿐'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뿐'은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뿐'을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띄어 써야 한다.
-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한다.
-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9.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문법 성분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은 '독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2개(주어, 서술어) 갖고 있다. ㄹ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3개(주어, 목적어, 서술어) 갖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은 '주어, 서술어', ㄴ은 '주어, 보어, 서술어'의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ㄷ은 '아야'라는 독립어(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③ ㄹ은 '자동차를', ㅁ은 '밥을'이라는 목적어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⑥ ㄷ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인 '너무'를, ㄹ은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인 '새'를 포함하고 있다. ㅁ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 '재빨리', 관형어 '설익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해설

문법 성분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ㄷ은 '독립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2개(주어, 서술어) 갖고 있다. ㄹ은 '주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주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3개(주어, 목적어, 서술어) 갖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ㄱ은 '주어, 서술어', ㄴ은 '주어, 보어, 서술어'의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② ㄷ은 '아야'라는 독립어(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③ ㄹ은 '자동차를', ㅁ은 '밥을'이라는 목적어를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 ⑥ ㄷ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인 '너무'를, ㄹ은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인 '새'를 포함하고 있다. ㅁ은 부속 성분으로 부사어 '재빨리', 관형어 '설익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40.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먹다'는 '학생들이'와 같은 주어와 '음식'과 같은 목적어만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관형어 '맛있는'은 부속 성분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없어도 되는 성분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되다'는 주어(얼음)와 보어(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② '피다'는 부사어(활짝)를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개나리)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③ '똑같다'는 주어(이것)와 부사어(실물)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⑤ '삼다'는 주어(그는)와 목적어(교직)와 부사어(직업으로)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41. 정답 : [㉑]
출처 : 2013 7030 최종점검 실전마무리 국어A

해설

문법 단위의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1] 단어의 특성
단어는 홀로 독립하여 쓰일 수 있어야 한다.

[확인 2] '-니'의 특성
③의 '-니'는 자립하여 쓸 수 없는 말이므로 ㉑의 '가'와는 달리 단어로 속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단어에 해당하는 조사의 특성
'에'는 조사이다. <보기 1>의 설명에 의하면 조사는 단어에 포함된다.

③ [확인] 문장의 특성
<보기 1>의 설명에 의하면 주어나 서술어를 생각하더라도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이면 문장에 해당한다.

④ [확인] ㉑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유
<보기 1>의 설명에 의하면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

은 단위인데, ㉔은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므로 단어에 해당한다.
 ⑤ [확인] 어절의 특성
 <보기 1>의 설명에 의하면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를 가리킨다. ㉔은 두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142. 정답 : [㉔]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서 '얼음으로'가 없으면 '물'이 무엇이 되었는지 제시되지 않아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얼음으로'는 서술어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얼음이'는 보어로서 서술어 '되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다.
 ③ 서술어 '주다'는 '받는 사람'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동생'과 '나'는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동생에게'와 '나에게'는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부사어이다.
 ④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다)에서는 '부모님께서', '선물들', '동생에게'가, (라)에서는 '그는', '나에게', '핀잔을'이 서술어 '주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다.
 ⑤ '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서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가)~(라)를 통해 서술어에 따라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3. 정답 : [㉔]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서 밑줄 친 부분은 '영화관에 가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그 뒤에 부사격 조사인 '에'가 붙어 있으므로,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솔직했음을 알았다.'에서 '그가 솔직했음'은 명사절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144.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다음 밑줄 친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안과 그 결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장이 비문인 이유를 파악한 후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제시된 문장이 어떤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수정 방안)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필요한 문장 성분을 보충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제시된 문장에서 '아니라는'의 '아니-'는 주어 외에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인데 보어를 빠뜨림으로써 잘못된 문장이 되었다.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맞게 보어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수정 방안)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제거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간결한 표현 여부는 이 문장의 문제점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수정 결과 또한 간결하게 표현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수정 방안) 문장의 접속 표현을 의미에 맞게끔 고친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은 접속 표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수정 결과 역시 그 이전과 비교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정 방안) 중의적인 표현을 없애기 위해 수식하는 말을 넣어 준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은 중의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수정 결과도 중의성 해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수정 방안) 의미가 모호한 단어 대신 좀 더 명확한 단어로 바꾼다.
 (수정 결과) 그는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 이 문장에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가 없으며 수정 결과도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45. 정답 : [㉔]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의 구분

밑줄 친 부분 중 주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이 문제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부속 성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다르다, 생기다, 같다, 비슷하다, 많다'와 같은 두 자리 서술어나, '주다, 삼다, 낚다, 두다'와 같은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민수는 영희에게 꽃을 주었다.
 →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지만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영희에게'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로 생략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 '매우'는 '많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속 성분이다.
 ③ 모든 인간은 불을 사용해 왔다.
 → '모든'은 '인간'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속 성분이다.
 ④ 어린 시절의 그리운 친구를 만났다.
 → '그리운'은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속 성분이다.
 ⑤ 다리가 긴 타조가 성큼성큼 뛰어간다.
 → '성큼성큼'은 '뛰어간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문장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부속 성분이다.

146. 정답 : [③]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지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③의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물을 때라는 담화 상황으로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것으로,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문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 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추운 겨울에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세요.'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7. 정답 : [④]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매체 언어의 문법적 특성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대화가 비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필수 성분, 즉 필수적 부사어 또는 타동사의 목적어 같은 성분이 생략되어 있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칭구(친구)', '발교락(발가락)', '아라싸(알았어)', '오상(오세요)', '안녕(안녕)' 등에서 알 수 있듯, <보기>는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심'도 원래의 뜻과 달리 '진짜로, 정말로' 등의 의미를 띠 부사어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창완이는 '진짜'와 '우와'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구두 언어에 의한 대화에서 자신의 뜻이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성량의 크기를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시각적 요소의 변화를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했지'는 '추웠지'를 줄인 것이고, '낼'은 '내일'을 줄인 것인데, 이는 인터넷 메신저에서 글자를 빨리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⑤ '^_^', 'ㅠㅠ'는 각각 웃는 표정과 우는 얼굴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 이는 모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것들이다.

148. 정답 : [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담화 생산의 의도와 담화 기능은 일대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즉 하나의 담화가 갖는 기능은 하나 이상일 수 있다. (가)는 보도 기사문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생산되어 일차적으로는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호소의 기능도 할 수 있어 담화 생산 의도와 담화 기능이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청중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로 생산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외의 다른 기능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담화 생산 의도와 담화 기능이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담화의 구조는 담화 생산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도 기사문이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 중 핵심 정보를 가장 먼저 배치하고 점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아가는 구조인 역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나, 연설문이 자신을 소개하고 공약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모두 담화 생산의 목적이 담화의 구조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가)는 보도 기사문으로서 기사문을 접하게 되는 집단은 불특정 다수가 된다. 이에 비해 (나)는 연설 담화를 수용하는 집단이 연설을 듣는 교내 학생들로서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대상이 분명하다는 특성이 있다.
- ③ (나)는 구어 담화로서 TV와 같은 매체를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체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또 담화의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황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는 보도 기사문으로서 문어 담화적 특성을 보이고, (나)는 연설문으로서 구어 담화적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어 담화는 문어 담화에 비해 덜 체계적인 경향을 띤다. 말하는 중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의견은'과 같은 구절의 삽입, '이 학교에서,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에서'와 같은 반복 표현 등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49. 정답 : [①]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독문A형

해설

담화 맥락 추론

다음 (㉠)~(㉣)의 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동일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떠한 담화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질문과 답변뿐만 아니라 모든 발화는 맥락이 달라지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동일한 표현이라도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 제시된 대화 자료를 보면 질문이 모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이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말해 준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질문을 할 때 부정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에 혼동이 일어난다.
 → 질문에 부정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대화에서는 의미의 혼동 없이 명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 ③ 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 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의 반응 중에는 대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가령 되묻는 경우)이 많다.
- ④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 제시된 자료와 관계 없는 설명일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 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몸짓,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
 → 제시된 대화 자료는 비언어적 표현과는 무관하다.

150. 정답 : [④]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분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영희의 두 번째 발화는 성호의 두 번째 발화가 자신을 책임하려는 의도를 지닌 간접 발화임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호의 첫 번째 발화는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지를 묻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상은 ○○대학교에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영희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성호의 첫 번째 발화를 말 그대로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지를 묻는 의문의 의도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성호의 두 번째 발화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영희가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의도를 담고 있다.

⑤ 성호의 마지막 발화는 ○○대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명령문의 형태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낸 직접 발화이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1) 국어와 삶

(나) 국어의 구조

④ 담화

☞ 담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구어, 문어, 매체 담화의 문법적 특성을 이해한다.

⑬ 구어, 문어, 매체 담화에서 문법적 특성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활용한다.

151. 정답 : [④]

출처 : 2013 인터넷수능 화작특문A형

해설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 파악

다음 ㉔, ㉕에 해당하는 담화의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 문제는 제시된 담화의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담화가 어떤 유형의 담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담화, 호소 담화, 약속 담화, 선언 담화 등 여러 담화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 ㉕

④ 선언 담화 정보 제공 담화

→ 법원 판결문은 선언 담화에 속하고, 신문 기사는 정보 제공 담화에 속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㉔ ㉕

① 호소 담화 약속 담화

② 선언 담화 호소 담화

③ 약속 담화 호소 담화

⑤ 호소 담화 정보 제공 담화

→ 호소 담화 : 호소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
예) 광고, 설교, 연설 등

→ 약속 담화 : 해당 약속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
예) 맹세, 계약서, 합의서 등

→ 선언 담화 : 어떤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하여 새로운 사대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담화
예) 선전 포고, 유언장, 임명장, 판결문 등

→ 정보 제공 담화 :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담화

예) 강의, 기사문, 보고서, 안내문 등

152. 정답 : [①]

출처 : 2013 수능특강 국어 A형

해설

생활 담화의 문법적 특성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군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다.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는 '글쎄…….', '음…….' 등 군말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는 글을 쓰듯이 체계적으로 문장을 생산해 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기 2>의 상황에서는 그런 군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준수와 은주의 대화 상황에서 '이거, 그거' 등 '과학 과제'라는 말을 대신하는 지시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 대화의 맥락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더 간단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③ 은주의 물음 "원데?"에는 "(네가 물어볼 것이) 원데?" 정도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고, "하여튼 너는."이라는 표현에도 뒤에 올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준수의 물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나 은주의 답 "저번에 내가 말해줬잖아, 어떻게 하는지." 등에서 문장의 어순이 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준수와 은주는 출문장 위주의 구조가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빠르게 묻고 답하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기 어렵다.

출제 근거

교육과정 세부 내용

문법 I

(2) 국어와 삶

(가) 일상 언어

⑬ 다양한 생활 담화의 문법적 특성을 탐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153. 정답 : [⑤]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매체의 성격, 예상 독자(청자)에 따라 담화는 그 형식을 적절하게 바꾸게 되며, 담화에 따른 문법적 특성을 지닌다. ㉔에서 지적인 내용은 대개 문장의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가)에서 쓰인 피동 표현 '-게 되-'가 (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라는 구어적 상황을 가정하여 담화가 구성되어 '오'와 같은 종결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나)에서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담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오체의 상대 높임 표현, '-(으)시-'를 통한 주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가)가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의 담당자 답변 문장에서는 주제에 따라 두 문장으로 나누어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쓰인 '영위', '교부', '매일', '발생' 등은 주로 법률문과 같은 문장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이다. (나)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이들 한자어를 고유어나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자주 쓰는 한자어로 교체하였다.

154. 정답 : [④]
출처 : 2013 수능완성 국어A형

해설

담화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담화에서 표제에 해당하는 '등돌린 자식'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인을 받치고 있는 자식을 상형한 한자[孝]를 변형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보기>의 주된 담화 기능은 설득이지만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담화의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본문에서 화자는 '여러분도', '우리의'와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을 청자와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청자의 동감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의 태도를 지적한 후에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설득하고 있는 호소 담화이다.

155. 정답 : [④]
출처 : 2013 EBS N제 국어 270제A형

해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남성의 발화 중 평서형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부분은 '○○○○입니다(\.),' '준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인데, 하강조의 억양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발화 중 평서형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부분은 '먹고 왔어요(\.),' '알게 됐어요(\.),' '일품이에요(\.),'인데, 마찬가지로 하강조의 억양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만 하강조의 억양을 구사한다고 진술한 ④는 잘못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남성은 하십시오체를, 여성은 해요체를 주로 구사하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격식적인 말투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를 보면 남성은 하십시오체를, 여성은 해요체를 구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상대 높임 등급을 구사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내용을 이어서 말할 때, 남성은 '요'를 붙여 사용하지 않음에 비해, 여성은 '요'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남성의 발화인 '그렇게 맛있습니까(↗)?', 여성의 발화인 '정말로 처음이세요(↗)?'를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상승조의 억양을 구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표>

1	③	2	⑤	3	①				
4	ㅍ, ㅌ, ㅋ, ㆁ								
5	④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③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9	⑤

<정답표>

1	③	2	⑤	3	①				
4	ㅍ, ㅌ, ㅋ, ㆁ								
5	④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③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⑤	17	②	18	①	19	⑤
20	④	21	①	22	⑤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③	28	③	29	②
30	③	31	④	32	⑤	33	①	34	③
35	③	36	⑤	37	⑤	38	⑤	39	③
40	①	41	②	42	①	43	④	44	⑤
45	④	46	⑤	47	④	48	②	49	②
50	⑤	51	⑤	52	③	53	⑤	54	②
55	④								
56	㉠ 품사 ㉡ 형태 ㉢ 기능 ㉣ 의미								
57	③	58	⑤	59	④	60	⑤	61	③
62	④	63	⑤	64	②	65	③	66	①
67	④	68	⑤	69	③	70	③	71	⑤
72	②	73	③	74	④	75	①	76	③
77	②	78	⑤	79	④	80	①	81	④
82	⑤	83	②	84	①	85	①	86	⑤
87	⑤	88	③	89	③	90	③		
91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2	⑤	93	②	94	②	95	②	96	①
97	③	98	⑤	99	④	100	⑤		
101	(1) 현재, (2) 미래, (3) 과거, (4) 현재, (5) 미래								
102	②	103	③	104	⑤	105	④	106	⑤
107	④	108	③	109	⑤	110	③	111	④
112	①	113	③	114	④	115	⑤	116	②
117	②	118	①	119	②	120	①	121	②
122	③	123	⑤	124	①	125	④	126	③
127	②	128	③	129	③	130	⑤	131	③
132	③	133	④						
134	(1) 사회 방언 (2) 지역 방언 (3) 사회 방언 (4) 지역 방언								
135	④	136	⑤	137	③	138	③	139	④
140	④	141	①	142	②	143	④	144	⑤
145	②	146	③	147	④	148	⑤	149	①
150	④	151	④	152	①	153	⑤	154	④
155	④								

